05

감정의 표현과 작품 해석

연결 개념 · 문학 개념 요약 시08·시09

1부	감정과 관념을 드러내는 방법 · E01~E12 · Q01~Q28
2부	〈보기〉와 작품을 연결하는 방법 · E13~E18 · Q29~Q44
3부	새 작품에 적용하기 · 자료 A~C · Q45~Q56
4부	앞선 개념과 함께 읽기 · 자료 D · Q57~Q60
정답과 해설	빠른 정답 · 판단 근거 · 모든 선지의 해설

기호 약속 ○ 해당함 ✕ 해당하지 않음 △ 주어진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음

예문·지문·〈보기〉는 학습을 위해 새로 썼습니다. 그림은 장면과 관계를 이해하는 보조 자료이며, 문제는 글에 제시된 근거로 판단합니다.

© 대치동 재우쌤 | 010-9524-4849 | https://leessaem.com/ | https://blog.naver.com/leessaem84
본 자료는 직접 제작한 학습 자료입니다. 개인 학습을 위한 열람·인쇄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무단 복제·재배포·수정 후 재배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1부 감정과 관념을 드러내는 방법

감정 표현은 무엇을 기준으로 구별할까?

대상과 마음의 관계

- 정서를 드러내는 대상인가? — 객관적 상관물 · E01~E02
- 대상도 같은 감정을 느끼나? — 감정 이입 · E03~E05
- 대상에 마음과 뜻을 담았나? — 투영·투사·의탁 · E06

관념·인식·주체의 관계

- 추상적인 것을 감각화했나? — 관념의 구체화 · E07~E08
- 마음에 따라 바꾸어 보았나? — 주관적 변용 · E09
- 주체와 대상이 뒤바뀌었나? — 주객전도 · E10~E11

여러 조건을 충족하면 함께 성립할 수 있음 · E12

Ⅰ. 대상과 마음의 관계

E01 사물이 어떻게 마음을 드러내나요?

> **한 줄 답:** 사물·장면·사건이 어떤 감정이나 생각을 떠올리게 하는지 봅니다. 이런 구체적 대상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합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화자의 정서를 환기하는 소재”, “정서를 드러내는 매개물” — 환기는 마음을 떠올리게 함입니다.

정서는 작품에 드러난 감정·기분을 뜻합니다(01편). 여기서 ‘마음’은 이를 쉽게 풀어 쓴 말입니다.

용어	뜻 한 줄	확인 질문
객관적 상관물	화자의 정서·생각을 불러일으키거나 드러내는 구체적 대상·장면·사건	이 대상이 어떤 마음과 연결되는가?

> 할머니가 먼 곳으로 이사한 뒤
> 작은 반짇고리를 열자
> 내 옷을 꿰매 주던 손길이 그리워졌다.



할머니의 손길을 떠올리게 하는 반짇고리

대상	이어지는 기억	드러나는 마음
반짇고리	할머니가 옷을 꿰매 주던 일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

반짇고리가 그리움을 **느낀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짇고리를 통해 **화자의 그리움**이 드러납니다.

✕ 흔한 착각	○ 바른 판단
객관적 상관물은 감정이 없는 객관적 설명이다	이름 속 '객관적'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구체적 대상과 화자의 마음이 맺는 관계를 본다.
마음을 드러내려면 반드시 '슬프다' 같은 말을 써야 한다	사물·장면을 통해 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낼 수도 있다.

E02 시에 나온 사물은 모두 객관적 상관물인가요?

> **한 줄 답:** 사물의 등장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감정·생각을 드러내는 기능이 문맥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판정	예	판단 근거
○	합주를 그만둔 친구의 빈 악보대를 보니, 함께 맞추던 박자가 그리웠다.	빈 악보대가 친구에 대한 그리움을 불러옴
△	교실 뒤에 악보대가 세 개 있다.	악보대의 수만 제시되어 정서와의 관계는 알 수 없음

또한 대상이 화자와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 화자의 처지를 두드러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 축하 행렬은 웃으며 광장을 지난다.
> 끝내 오지 않은 너를 기다리는 나는
> 그 웃음 속에서 더욱 외롭다.

대상·장면	화자의 마음과의 관계
웃으며 지나가는 축하 행렬	즐거운 장면과 외로운 화자가 대비되어 외로움이 두드러짐

이 축하 행렬도 화자의 외로움을 두드러지게 하므로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 흔한 착각	○ 바른 판단
대상과 화자의 분위기가 같아야만 한다	서로 다른 분위기의 대비도 화자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다.
근거가 부족하면 언제나 ✕이다	짧은 문장만으로 기능을 알 수 없으면 △로 판단을 보류한다.

E03 감정 이입은 누구의 감정을 어디로 옮기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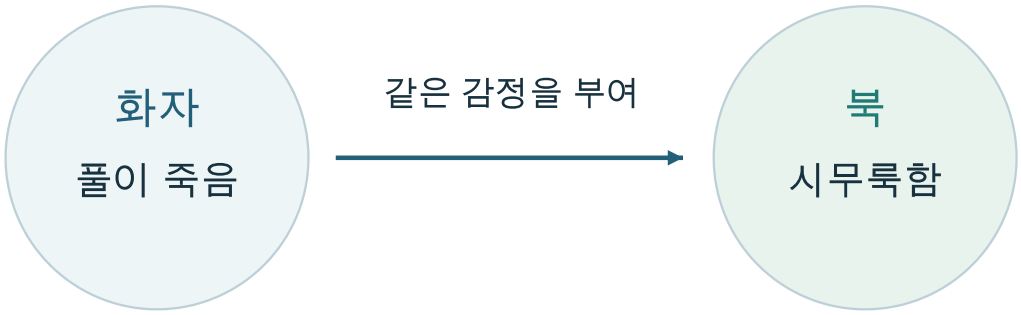
> **한 줄 답:** 화자의 감정을 대상에 옮겨, 대상도 그 감정을 느끼는 것처럼 표현합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대상에 화자의 정서를 이입하여” — 대상도 같은 감정을 느끼는지 봅니다.

용어	뜻 한 줄	확인 질문
감정 이입	화자의 감정을 대상에 옮겨 대상도 같은 감정을 느끼는 것처럼 표현함	화자의 마음과 대상에 부여한 마음이 같은가?

> 공연을 망쳐 풀이 죽은 나처럼
> 무대 한쪽의 북도 시무룩하게 고개를 떨군다.

감정은 화자에게서 대상으로



공연을 망친 나처럼 북도 시무룩하다.

독자가 화자에게 공감하는 것과 구별

확인할 것	이 예의 근거
화자의 감정	공연을 망쳐 풀이 죽음
대상에 부여한 감정	북도 시무룩함
둘의 관계	‘나처럼’, ‘북도’로 같은 마음을 연결함

‘나처럼’이라는 말이 없어도 문맥에서 같은 감정이 드러나면 감정 이입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E04의 판별 순서에서 ○·✕·△가 갈리는 지점을 비교합니다.

✕ 흔한 착각	○ 바른 판단
독자가 화자의 슬픔에 공감하면 이 표현 기법이다	여기서는 작품 안에서 화자의 감정을 대상에 부여하는지를 묻는다.
새가 울면 언제나 슬픔의 감정 이입이다	실제 울음소리인지, 화자의 슬픔을 부여한 표현인지 확인한다.

E04 대상을 사람처럼 표현하면 모두 감정 이입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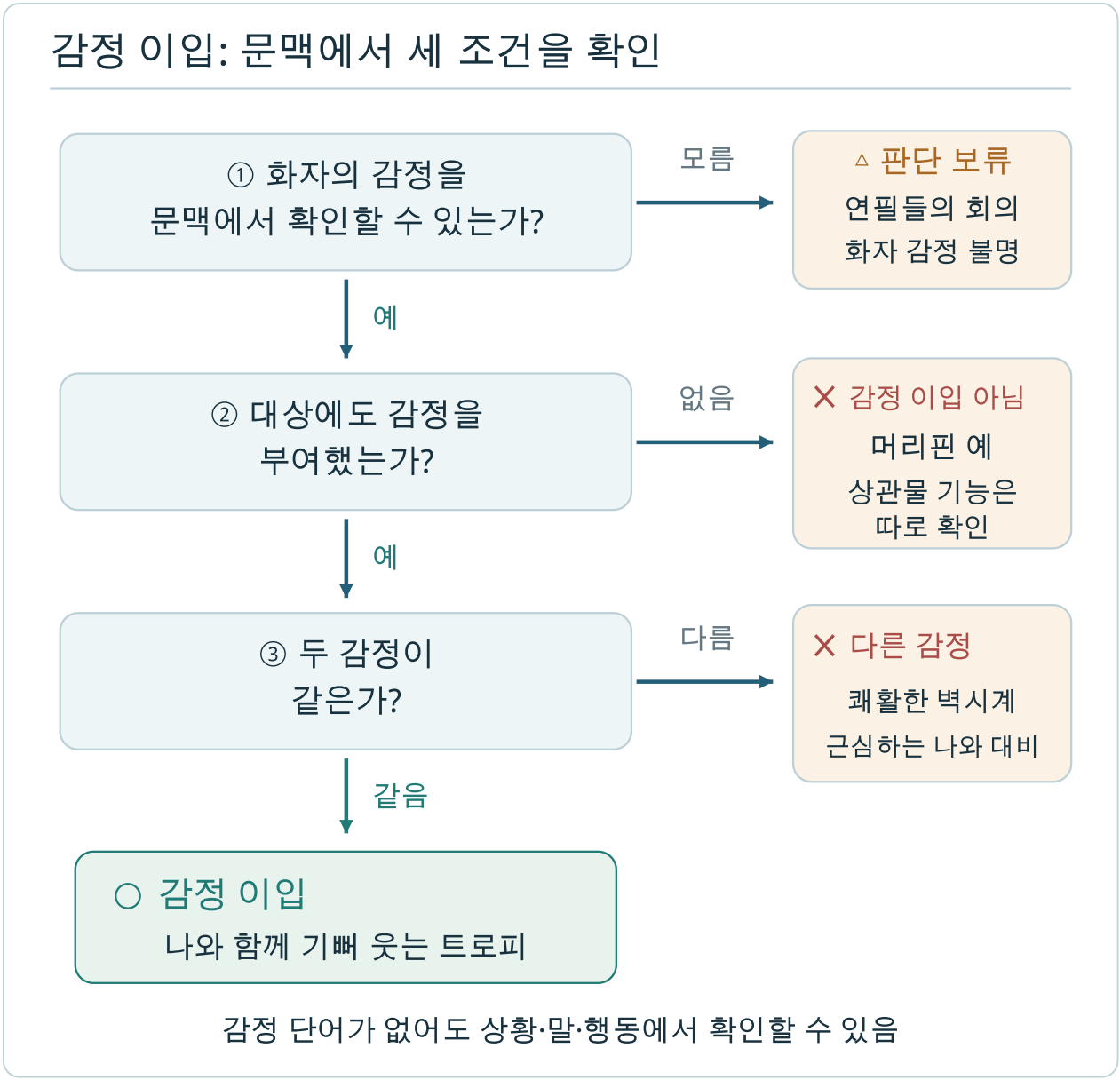
> **한 줄 답:** 아닙니다. 의인법은 인간적 성질을 부여하는지, 감정 이입은 화자의 감정까지 대상에 옮기는지 봅니다.

용어	판단 기준
의인법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가?
감정 이입	화자의 감정을 대상도 느끼는 것처럼 표현하는가?

예	의인법	감정 이입	근거
나는 우승이 기쁘다. 트로피도 나와 함께 환하게 웃는다.	○	○	트로피에 웃는 행동과 화자의 기쁨을 함께 부여
나는 근심에 잠겼는데, 벽시계는 내 사정도 모르고 쾌활하게 수다를 떤다.	○	✕	인간적 행동은 있지만 화자와 대상의 정서가 다름 → 감정 이입은 아니지만, 근심과 대비되는 객관적 상관물(E02)
연필들이 회의를 연다.	○	△	인간적 행동은 있으나 화자의 감정이 제시되지 않음

감정 이입을 판별하는 순서

1. 화자의 감정을 **문맥에서 확인할 수 있는가?** 알 수 없으면 △입니다. 감정 단어가 없어도 상황·말·행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대상에도 감정을 부여했는가? 부여하지 않았다면 ✕입니다. 대상이 화자의 정서를 불러오는 상관물인지는 따로 확인합니다.
3. 두 감정이 같은가? 같으면 ○, 다르면 ✕입니다. 다른 정서가 문맥에서 대비되는지도 살펴봅니다.



✕ 흔한 착각	○ 바른 판단
의인법과 감정 이입은 언제나 같은 뜻이다	함께 나타날 수 있지만 확인하는 조건이 다르다.
대상의 마음만 알면 감정 이입을 확정할 수 있다	화자의 마음과 연결되는지도 확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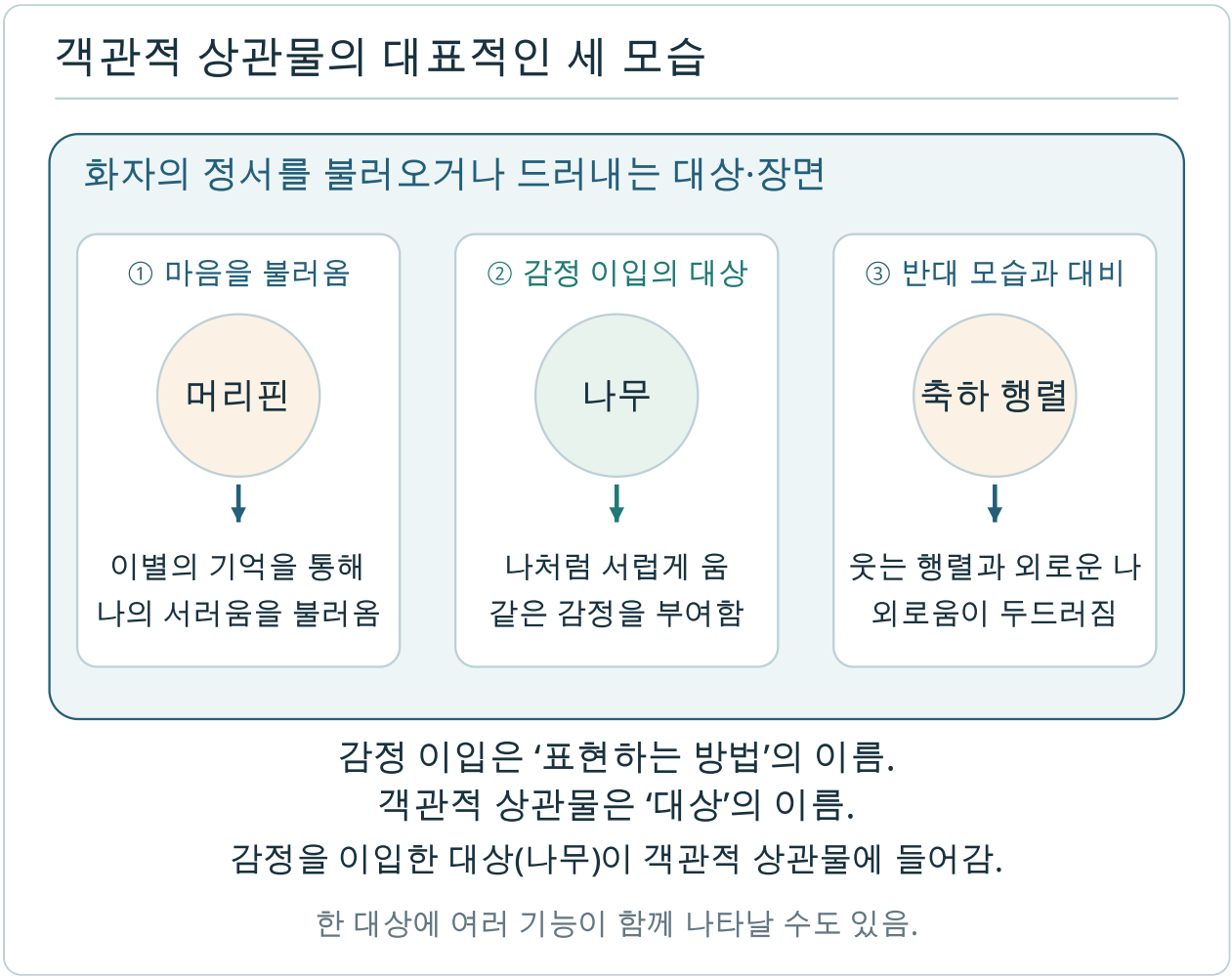
E05 감정 이입과 객관적 상관물은 어떤 관계인가요?

> **한 줄 답:** 감정 이입은 표현 방식이고, 그 감정을 부여받은 대상은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객관적 상관물로 볼 수 있습니다.

객관적 상관물의 대표적인 세 모습

객관적 상관물의 모습	대상의 감정은 어떻게 표현되었나?	이 학습지의 예
① 화자의 마음을 불러옴	대상이 감정을 느낀다고 표현하지 않음	반짇고리, 머리핀
② 화자와 같은 감정을 느끼는 것처럼 표현됨 — 감정 이입의 대상	화자와 같은 감정을 부여함	서럽게 우는 나무
③ 화자와 반대되는 모습으로 대비됨	화자와 다른 감정·분위기를 보임	웃는 축하 행렬, 쾌활한 벽시계

모든 대상을 반드시 셋 중 하나로만 나누는 표는 아닙니다. 한 대상에 여러 기능이 함께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예	감정 이입인가?	객관적 상관물인 대상
이별이 서러운 나처럼, 정원의 나무도 서럽게 운다.	○	화자의 서러움을 함께 느끼는 나무
네가 남긴 머리핀을 보자 이별의 서러움이 되살아났다.	✕ — 머리핀이 서럽다고 하지는 않음	화자의 서러움을 불러온 머리핀

감정 이입은 '표현하는 방법'의 이름이고, 객관적 상관물은 '대상'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이입한 **대상(나무)**이 객관적 상관물에 들어갑니다.

✕ 흔한 착각	○ 바른 판단
둘은 언제나 하나만 골라야 하는 반대 개념이다	한 대상에 감정을 이입하면서 그 대상으로 정서를 드러낼 수 있다.
객관적 상관물이면 대상도 같은 감정을 느낀다	감정을 부여하지 않고도 대상이 화자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다.

E06 마음을 대상에 '담는다'는 말도 감정 이입인가요?

한 줄 답: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투영·투사·의탁은 대상에 마음과 생각을 담아 나타낸다는 뜻으로 쓰이며, 대상도 그 감정을 느낀다는 뜻까지 늘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연물에 화자의 정서를 투영하여", "자연물에 의탁하여" — 자연물에 어떤 마음·뜻을 담았는지 봅니다.

용어	이 단원에서 확인할 뜻	확인 질문
투영·투사	대상에 화자의 마음이나 생각을 비추어 나타냄	대상에 어떤 마음을 담았는가?
의탁	대상에 마음이나 생각을 기대어 나타냄	무엇에 기대어 마음을 드러내는가?

> 비를 맞고 돌아온 네 어깨에
> 내 외투를 둘렀다.
> 젖은 어깨를 감싼 천에
> 너를 걱정하는 마음도 포갰다.



상대의 어깨에 외투를 둘러 주는 모습

표현	마음의 주인	외투의 감정은?	판단
외투에 너를 걱정하는 마음을 포갰다.	나	느낀다고 표현하지 않음	투영·의탁 ○ / 감정 이입 ✕
외투도 나처럼 너를 걱정하며 어깨를 감쌌다.	나	나와 같이 걱정함	감정 이입 ○



자연물에 뜻을 담는 예

> 눈보라 속에서도 푸른 소나무에
> 힘든 날에도 약속을 지키려는 내 뜻을 담았다.

소나무에 굳은 뜻을 **의탁**했습니다. 소나무 자체가 약속을 지키겠다고 결심하는 것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투영·투사·의탁을 언제나 서로 배제되는 세 기법처럼 나누지 않습니다. 선지에서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 문맥을 확인합니다.

✕ 흔한 착각	○ 바른 판단
마음을 담은 대상에는 반드시 사람 같은 감정이 있다	대상에 마음을 담는 것과 대상에게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은 다르다.

Ⅱ. 관념을 보이게 하고 관계를 바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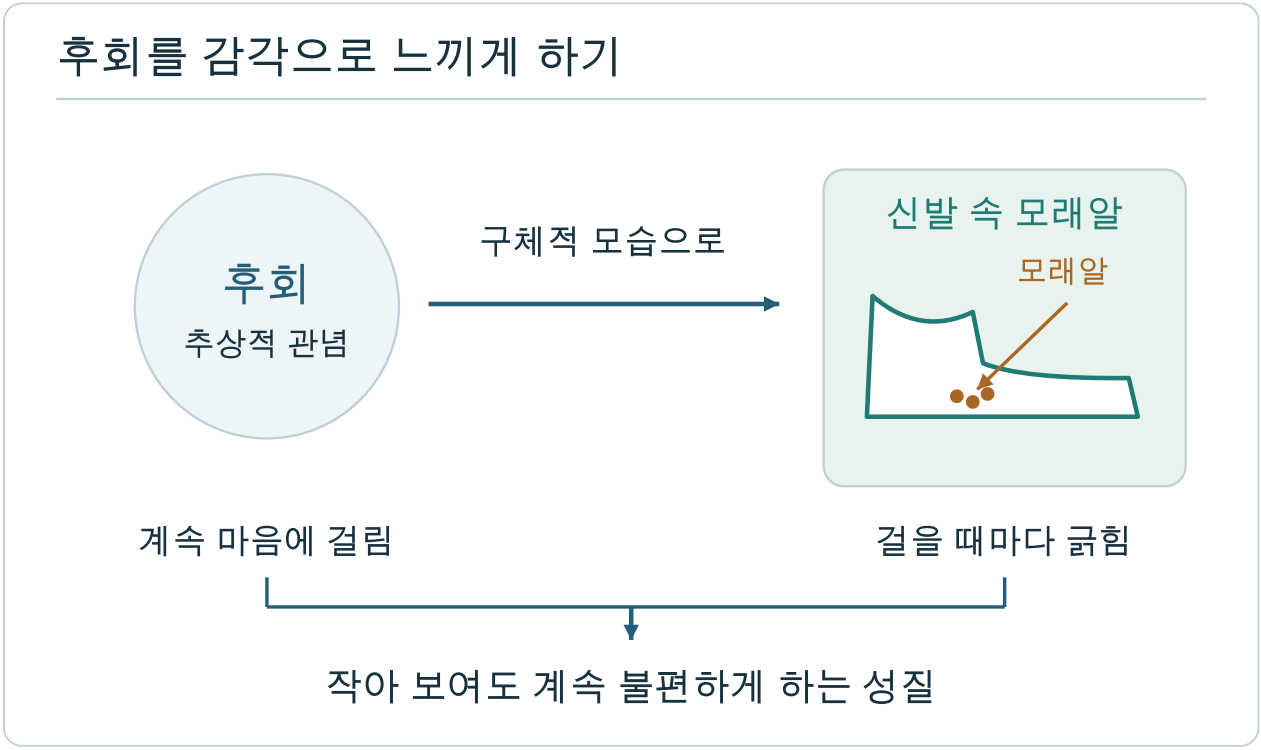
E07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을 어떻게 구체화하나요?

한 줄 답: 추상적인 감정·생각을 모양·소리·빛·촉감 등으로 느낄 수 있게 나타냅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추상적 관념을 구체적 사물로 형상화", "관념의 감각화·시각화" — 감각화는 감각으로 느끼게 함, 시각화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냄입니다.

용어	뜻 한 줄	확인 질문
추상적 관념	감각으로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생각·감정·가치 등	무엇을 감각적으로 드러내려 하는가?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추상적인 것을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게 표현함	어떤 감각적 모습이나 행동을 빌렸는가?

사과하지 못한 후회가
작은 모래알이 되어
걸을 때마다 내 신발 속을 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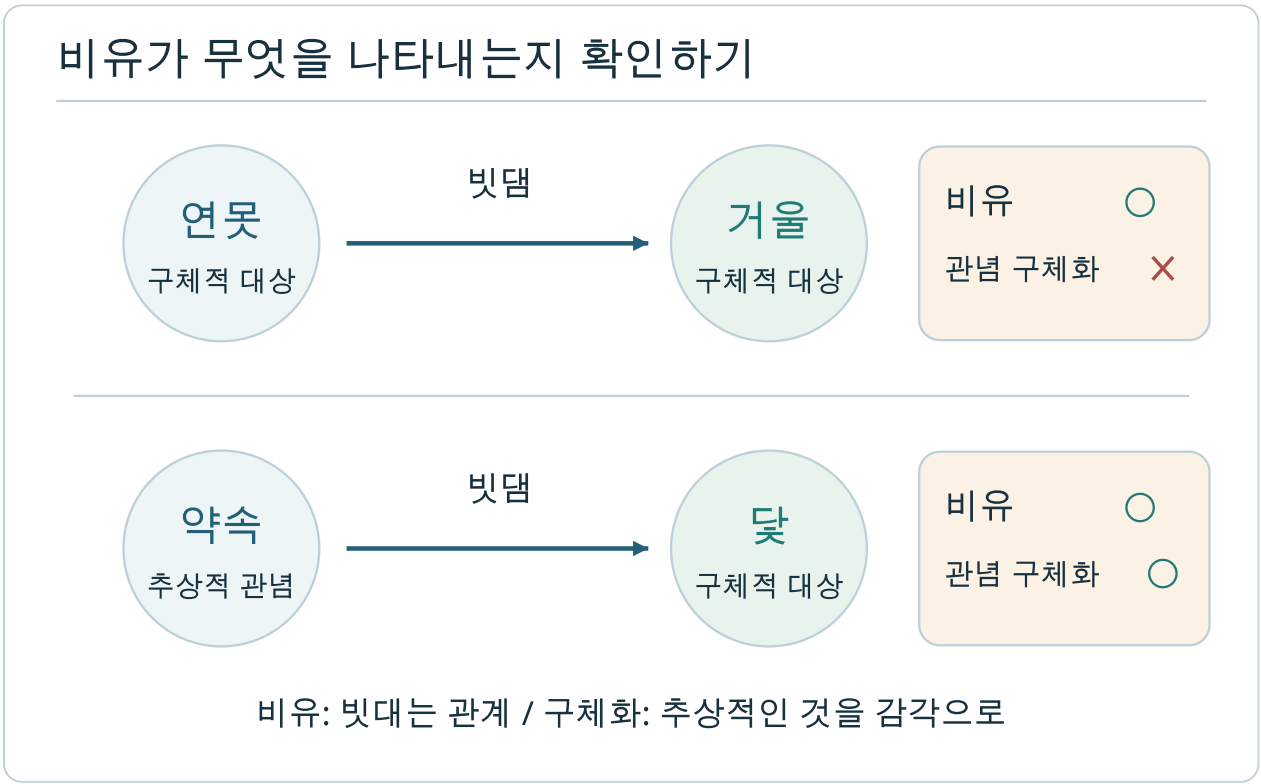
추상적 관념	빌려온 구체적 대상	강조되는 성질
후회	신발 속 모래알	작아 보여도 움직일 때마다 계속 불편하게 함

✕ 흔한 착각	○ 바른 판단
‘후회’라는 단어만 나오면 구체화이다	그 후회를 감각적으로 느끼게 한 표현도 찾아야 한다.
반드시 눈으로 보이게 해야 한다	소리·냄새·촉감 등으로도 구체화할 수 있다.

E08 비유를 쓰면 모두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인가요?

> **한 줄 답:** 아닙니다. 비유가 나타내려는 대상이 추상적 관념인지부터 확인합니다.

표현	나타내려는 것	비유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연못은 커다란 거울이다.	구체적 대상인 연못	○	✕
약속은 흔들리는 나를 붙드는 닻이다.	추상적 관념인 약속	○	○
나는 약속을 소중히 여긴다.	약속에 대한 생각	✕	✕ — 생각을 직접 말함



구체화는 **무엇을 감각적으로 나타냈는가**, 비유는 **무엇에 빗대었는가**를 봅니다. 서로 다른 기준이므로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흔한 착각	○ 바른 판단
비유가 있으면 원래 대상도 추상적이다	구체적인 대상을 다른 구체적인 대상에 빗댈 수도 있다.
구체화와 비유 중 하나만 답해야 한다	발문이 묻는 기준에 맞추어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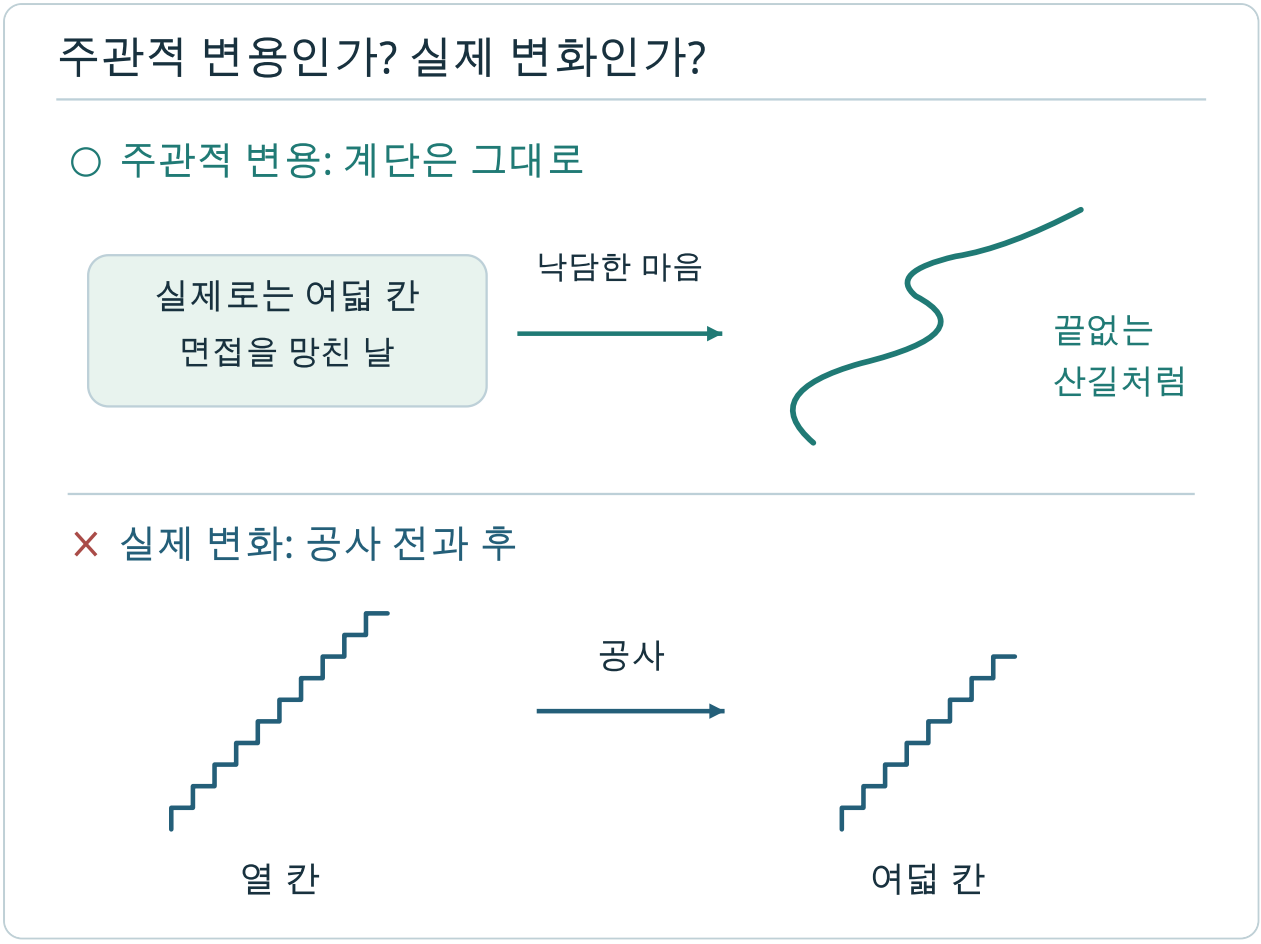
E09 마음에 따라 세상이 달라 보이면 무엇을 살피나요?

> **한 줄 답:** 대상의 실제 모습만 적은 것인지, 화자의 인식과 감정에 따라 바꾸어 표현한 것인지 봅니다. 후자를 주관적 변용이라고 합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화자의 주관에 따라 대상을 변용하여” — 마음과 인식에 따라 바꾸어 표현했는지 봅니다.

용어	뜻 한 줄	확인 질문
주관적 변용	사물·현상·행위를 화자의 인식과 감정에 따라 바꾸어 표현함	실제 모습과 화자가 느낀 모습은 어떻게 다른가?

판정	예	근거
○	겨우 여덟 칸인 계단인데, 면접을 망친 날에는 끝없는 산길처럼 느껴졌다.	낙담한 마음에 따라 계단을 끝없이 힘든 길로 나타냄
✕	공사 뒤 계단이 열 칸에서 여덟 칸으로 줄었다.	감정에 따른 표현이 아니라 실제 공사로 생긴 변화



× 흔한 착각	○ 바른 판단
주관적 변용은 대상이 실제로 변했다는 뜻이다	화자가 대상을 받아들이고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진 것이다.
의인법·비유·감정 이입과는 함께 나타날 수 없다	주관적 변용은 이들 표현 방식과 겹칠 수 있다.

E10 주객전도에서는 무엇이 뒤바뀌나요?

한 줄 답: 느끼거나 행동하는 주체와 그 대상이 뒤바뀝니다. 앞뒤의 관계를 복원해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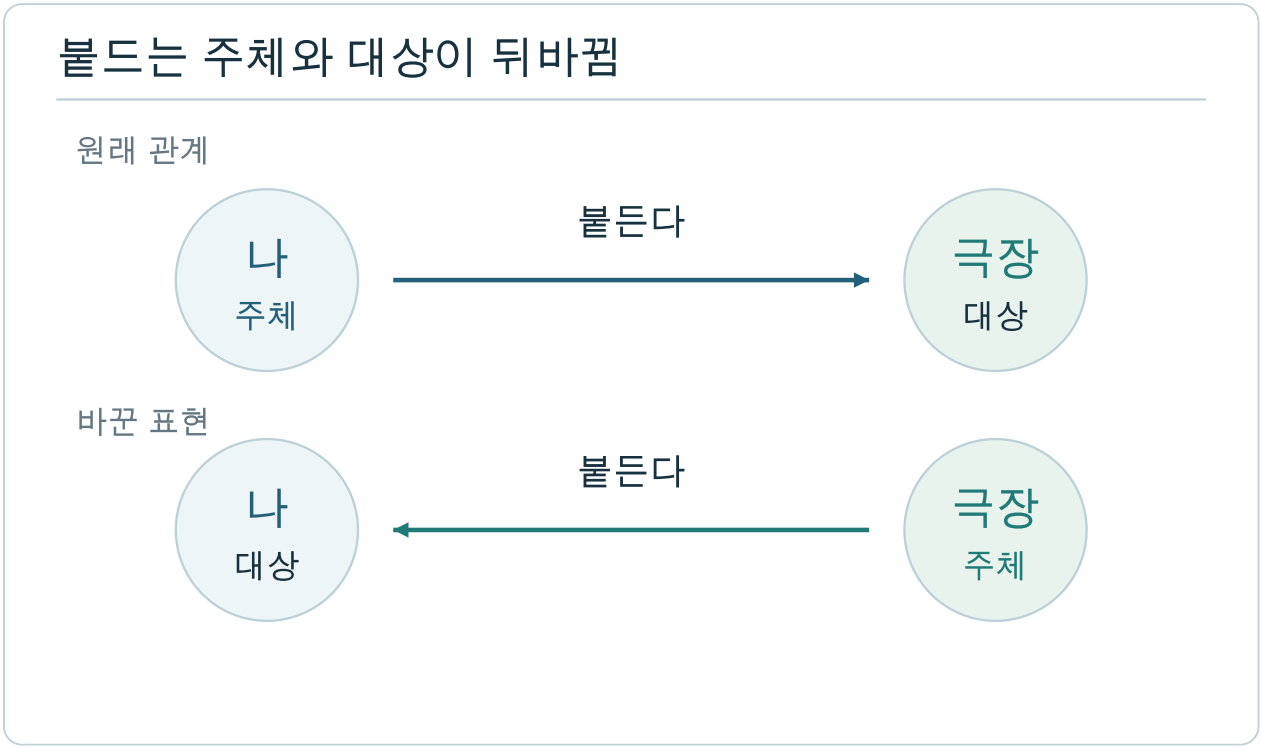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주체와 객체가 전도된 표현" — 주체와 대상의 관계가 뒤바뀌었는지 봅니다.

용어	뜻 한 줄	확인 질문
주체	느끼거나 행동하는 쪽	누가 그리워하고, 붙들고, 찾아가는가?
객체(대상)	그 감정이나 행동이 향하는 쪽	누구를, 무엇을 그리워하고 붙드는가?

용어	뜻 한 줄	확인 질문
주객전도	주체와 대상을 뒤바꾸어 나타내는 방식	원래 관계의 두 쪽이 바뀌었는가?

주(主)는 주체, 객(客)은 객체, 전도는 뒤바뀜을 뜻합니다. 객체는 감정이나 행동이 향하는 대상입니다.

> 나는 떠나기 싫어 낡은 극장을 붙들고 있었다.
> 그 극장이 끝내 나를 붙들어 보내 주지 않았다.



관계	붙드는 주체	붙드는 대상
앞 문장	나	극장
뒤 문장	극장	나

극장에 머물고 싶은 마음을 극장이 나를 놓아주지 않는 것처럼 표현하여 애착을 드러냅니다.

두 존재가 실제로 행동을 한 번씩 주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주객전도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화자의 인식이나 행동을 대상이 하는 것처럼 바꾸어 표현했는지** 봅니다.

✕ 흔한 착각	○ 바른 판단
사물이 주어이면 모두 주객전도다	원래의 주체·대상 관계가 뒤바뀌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언제나 앞 문장이 있어야만 판단할 수 있다	앞 문장이 없어도 문맥에서 원래 관계를 복원할 수 있으면 판단할 수 있다.

E11 도치와 주객전도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한 줄 답: 말의 순서만 바뀌었는지, 누가 누구에게 느끼거나 행동하는 관계까지 바뀌었는지 봅니다.

기준 문장	나는 오래도록 그 등대를 바라보았다.

바꾼 표현	변화	판단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나는 그 등대를.	말의 순서는 바뀌지만 바라보는 주체는 여전히 '나'	도치
오래도록 그 등대가 나를 바라보았다.	내가 등대를 바라보는 마음을 등대가 나를 바라보는 것으로 바꿈	주객전도

둘째 표현은 등대에 바라보는 행동을 부여하므로 의인법도 함께 나타납니다.

순서가 바뀌나, 관계가 바뀌나?

기준
나는 오래도록 그 등대를 바라보았다.
나 → 등대

도치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나는 그 등대를.
나 → 등대

주객전도
오래도록 그 등대가 나를 바라보았다.
등대 → 나

도치: 주체 유지 / 주객전도: 주체와 대상 교환

✕ 흔한 착각	○ 바른 판단
문장 뒤에 '나'가 나오면 주객전도다	낱말의 위치보다 주체·대상 관계를 본다.
도치가 있으면 주객전도는 있을 수 없다	한 문장에 두 변화가 함께 나타날 수도 있다.

E12 한 표현에 여러 기법이 보이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 **한 줄 답:** 이름 중 하나를 억지로 고르지 말고, 각 개념의 조건을 따로 확인합니다.

여섯 개념 한눈에 비교

개념	확인 질문	꼭 있어야 하는 것	없어도 되는 것	헷갈리는 짝
객관적 상관물	이 대상이 화자의 어떤 마음과 연결되는가?	구체적 대상 + 화자의 마음과의 연결	대상이 느끼는 감정	감정 이입
감정 이입	대상도 화자와 같은 감정을 느끼는가?	화자의 감정 + 대상에 부여한 같은 감정	'나처럼' 같은 표지	의인법
투영·투사·의탁	대상에 어떤 마음·뜻을 담았는가?	마음·뜻을 담은 대상	대상이 느끼는 감정	감정 이입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추상적인 것을 감각으로 느끼게 했는가?	추상적 관념 + 감각적 표현	비유(빗대는 표현)	비유
주관적 변용	마음에 따라 대상의 모습이 달라졌는가?	화자의 인식·감정에 따라 바꾸어 표현한 모습	대상의 실제 변화	실제 변화
주객전도	주체와 객체(대상)가 뒤바뀌었는가?	원래 관계 + 뒤바뀐 관계	어순 변화	도치

관념의 구체화는 비유 외에도, 마음을 드러내는 감각적인 장면·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표를 써 본 예

> 친구가 돌아온다는 소식에 나는 기뻤다.
> 마당의 자두나무도 나처럼 기뻐서 두 팔을 흔들었다.

확인 질문	판단	근거
사람이 아닌 대상에 인간적 성질을 부여했는가?	의인법 ○	나무가 두 팔을 흔듦
화자의 감정을 대상에도 부여했는가?	감정 이입 ○	나처럼 기뻐함
대상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가?	객관적 상관물 ○	자두나무를 통해 화자의 기쁨이 드러남

확인 질문	판단	근거
화자의 감정에 따라 대상을 바꾸어 표현했는가?	주관적 변용 ○	나무를 함께 기뻐하는 존재로 나타냄
주체와 대상의 관계가 뒤바뀌었는가?	주객전도 ✕	‘나→나무’가 ‘나무→나’로 바뀐 관계가 아님

같은 근거가 여러 개념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조건이 성립했다고 다른 조건까지 확인 없이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확인·비교 문제 01~28

01

> 아버지가 쓰시던 낡은 안경을 닦는다. 안경다리의 작은 흠집을 만지자, 곁에서 책을 읽어 주시던 목소리가 그립다.

‘낡은 안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안경이 화자와 같은 그리움을 느끼는 감정 이입의 대상이다.
② 화자의 마음과 무관하게 안경의 크기만 알려 주는 소재이다.
③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불러오는 객관적 상관물이다.
④ 이 글을 쓴 실제 작가의 직업을 확인해 주는 물건이다.

정답·해설 →

02

> 선반 위에는 유리병 두 개가 놓여 있다.

이 문장만으로 두 유리병의 정서적 기능을 판단할 때 가장 적절한 태도는?

① 사물이 두 개 등장했으므로 외로움의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확정한다.
② 감정 단어가 없으므로 어떤 문맥에서도 상관물이 될 수 없다고 본다.
③ 화자의 감정과 연결되는 문맥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
④ 유리병의 정서가 밝은지 슬픈지만 확인하면 충분하다고 본다.

정답·해설 →

03

> 합격한 친구들의 웃음이 복도에 가득하다. 불합격 통지서를 쥔 나는 그 웃음 속에서 더욱 쓸쓸하다.

친구들의 웃음이 하는 역할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어 쓸쓸함을 두드러지게 한다.
② 화자와 정서가 다르므로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는 데 쓰일 수 없다.
③ 화자가 친구들을 미워하여 합격을 막았음을 알려 준다.
④ 화자의 기쁨을 친구들도 느끼게 한다.

정답·해설 →

04

> (가) 전학 간 친구의 배지를 보자 함께 웃던 날이 그립다.
> (나) 친구를 보내고 서운한 나처럼, 교문 앞 나무도 서운해 고개를 떨군다.

(가)와 (나)를 비교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가)만 구체적 대상을 통해 화자의 마음을 드러낸다.
② (나)에서는 나무의 감정을 화자가 처음 배워 느낀다.
③ (가)의 배지와 (나)의 나무는 모두 상대를 그리워하는 주체이다.
④ (나)는 대상에도 화자의 감정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가)와 다르다.

정답·해설 →

05

> 응원하던 팀이 이겨 나는 신이 났다.
> 내 손의 작은 깃발도 나처럼 신나서 펄쩍펄쩍 뛴다.

이 표현에서 감정 이입의 방향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작가가 독자에게 반드시 응원하도록 명령했다.
② 화자의 신나는 마음을 깃발에도 부여했다.
③ 깃발의 실제 감정을 조사하여 화자의 감정과 구별했다.
④ 독자가 깃발의 모양을 정확히 그려 보았다.

정답·해설 →

06

> 새가 운다. 나는 공책에 그 소리를 세 번 적는다.

감정 이입에 대한 판단으로 적절한 것은?

① 소리를 적었으므로 화자가 새를 미워한다고 확정한다.
② 새의 울음에 화자의 감정을 부여했는지는 이 문장만으로 알기 어렵다.
③ 화자의 감정을 직접 말하지 않았으므로 다른 문맥에서도 감정 이입은 불가능하다.
④ ‘운다’라는 말만으로 화자의 슬픔을 새에게 이입했다고 확정한다.

정답·해설 →

07

> 나는 해결하지 못한 일로 근심이 깊다.
> 강물은 내 사정도 모르고 즐겁게 노래하며 달려간다.

이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강물과 화자의 감정이 다르므로 의인법도 성립하지 않는다.
② 강물은 의인화되었지만 화자의 근심을 함께 느끼지는 않는다.
③ 화자는 강물의 즐거움을 그대로 느끼고 있다.
④ 강물이 사람처럼 행동하므로 화자의 근심도 반드시 이입되었다.

정답·해설 →

08

> 해바라기들이 원탁에 모여 다음 소풍 날짜를 의논한다.

이 한 문장에 대한 판단으로 적절한 것은?

① 의인법은 확인되지만 감정 이입인지는 화자의 마음을 더 살펴야 한다.
② 소풍이라는 낱말이 있으므로 화자의 들뜬 감정이 확실히 이입되었다.
③ 원탁이라는 물건이 있으므로 주객전도가 성립한다.
④ 의인법도 감정 이입도 나타나지 않는다.

정답·해설 →

09

> 네가 멀리 떠나 나는 외롭다.
> 창가의 화분도 나처럼 외로워 밤새 한숨을 쉰다.

‘화분’과 감정 이입의 관계를 정확히 설명한 것은?

① 화분은 표현 방법의 이름이다.

② 감정 이입은 표현 방식이고, 화분은 그 방식으로 정서를 드러내는 대상이다.

③ 화분에 감정을 이입했으므로 객관적 상관물로는 볼 수 없다.

④ 화분이 외롭다고 했으므로 화자의 외로움은 드러나지 않는다.

정답·해설 →

10

> 추운 곳으로 떠나는 동생에게 장갑을 건넸다. 손끝까지 따뜻하길 바라는 내 마음을 장갑 한 켤레에 담았다.

이 표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① 장갑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역할이 뒤바뀌었다.

② 장갑이 동생을 걱정하므로 감정 이입이 분명하다.

③ 화자의 마음을 직접 언급했으므로 장갑에 마음을 의탁했다고 볼 수 없다.

④ 장갑에 걱정과 배려를 담았지만 장갑 자체가 걱정한다고 하지는 않았다.

정답·해설 →

11

> “화자는 튼튼하게 엮은 바구니에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을 투영했다.”

이 설명이 맞는지 알아보려면 작품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가?

① 작품에 ‘투영’이라는 용어가 그대로 쓰였는지이다.

② 바구니가 실제로 말할 수 있는 재료인지이다.

③ 바구니가 슬퍼하는 모습만 있는지이다.

④ 바구니의 모습이나 쓰임이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과 연결되는지이다.

정답·해설 →

12

> 바위틈에 뿌리내린 풀에, 나는 어려움에도 삶을 이어 가려는 뜻을 담아 노래했다.

가장 적절한 설명은?

① 풀에 화자의 생각을 의탁했다고 볼 수 있다.

② 생각을 드러내는 대상은 객관적 상관물이 될 수 없다.

③ 풀을 노래했으므로 화자가 풀의 자람을 실제로 일으켰다.

④ 풀도 화자와 같은 슬픔을 느끼므로 감정 이입만 성립한다.

정답·해설 →

13

> 말하지 못한 미안함이 차가운 동전이 되어
> 내 주머니 바닥에서 오래 달그락거렸다.

‘추상적 관념 — 그것을 나타낸 구체적 대상’의 순서로 바르게 짝지은 것은?

① 주머니 — 미안함
② 주머니 바닥 — 차가운 동전
③ 미안함 — 차가운 동전
④ 동전 — 주머니

정답·해설 →

14

> 합격 통지를 받은 기쁨이
> 내 가슴에서 작은 종소리로 울렸다.

구체화의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실제 종의 개수만 객관적으로 기록했다.
② 종소리가 화자를 기뻐하는 주체로 바뀌었다.
③ 기쁨을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나타냈다.
④ 기쁨의 뜻을 사전처럼 풀이하여 감각을 없앴다.

정답·해설 →

15

> 단풍나무는 마당에 펼쳐 둔 붉은 우산이다.

이 표현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① 추상적 관념인 단풍나무를 감각적으로 바꾸었다.
② 구체적 대상을 다른 구체적 대상에 빗대었다.
③ 우산과 나무의 위치를 실제로 교환한 사건을 기록했다.
④ 화자의 슬픔을 우산도 느끼도록 옮겼다.

정답·해설 →

16

> 우리의 믿음은 거센 물살에도 끊어지지 않는
> 밧줄이다.

함께 확인할 수 있는 표현 방식은?

① 감정 이입과 문답
② 은유와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③ 직유와 실제 대화
④ 도치와 실제 질문

정답·해설 →

17

> 걱정거리가 풀린 날, 어제와 똑같은 골목이
> 가벼운 리본처럼 발 앞에 풀려 나왔다.

이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골목을 실제로 철거하여 길이가 줄어든 사실을 기록했다.
② 골목이 화자를 걱정했으므로 감정 이입이 확실하다.
③ 홀가분한 마음에 따라 골목을 새롭게 느낀 주관적 변용이다.
④ 화자와 골목의 행동 주체가 서로 바뀐 주객전도이다.

정답·해설 →

18

> 새 다리가 놓인 뒤 학교까지 가는 길이 실제로 오백 미터 짧아졌다.

이 문장에 대한 판단으로 적절한 것은?

① 학교가 화자를 그리워하여 가까워진 주객전도이다.

② 오백 미터라는 수가 있으므로 추상적 그리움을 구체화했다.

③ 길이가 달라졌으므로 반드시 화자의 기쁨에 따른 주관적 변용이다.

④ 시설의 변화로 거리가 달라졌다는 내용이며, 감정에 따른 변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정답·해설 →

19

> (가) 수리가 끝나 좁던 창문이 두 배로 넓어졌다.
> (나) 창문은 그대로인데, 답답한 내 마음에는 손바닥만 한 틈처럼 느껴졌다.

(가)와 (나)의 차이로 적절한 것은?

① (가)에만 화자의 감정이 창문에 부여되어 있다.

② (나)는 추상적 관념인 창문을 처음 사물로 바꾸었다.

③ (가)는 실제 변화, (나)는 마음에 따른 인식의 변화를 보여 준다.

④ 둘 다 창문의 실제 크기가 줄어든 사건이다.

정답·해설 →

20

> 걱정으로 잠 못 든 밤, 벽의 얼룩이 나를 몰아세우는 심판처럼 눈을 부릅떴다.

이 표현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① 얼룩도 걱정한다고 했으므로 감정 이입이 분명하다.

② 화자가 얼룩을 몰아세우던 관계가 반드시 뒤집혔다.

③ 얼룩이 실제 심판으로 변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고했다.

④ 의인법과 주관적 변용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정답·해설 →

21

> 나는 먼 바다를 밤낮으로 그리워했다.
> 이제는 그 바다가 밤낮으로 나를 그리워한다고 느낀다.

뒤 문장에서 그리워하는 주체와 대상은?

① 주체는 나, 대상은 바다이다.

② 주체는 밤, 대상은 낮이다.

③ 주체는 바다, 대상은 나이다.

④ 주체도 대상도 바다이다.

정답·해설 →

22

> 나는 오랫동안 이 고장을 사랑했다.
> → 오랫동안 사랑했다, 나는 이 고장을.

바뀐 문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고장이 사람처럼 말하므로 의인법이다.

② 고장이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주체와 대상이 바뀌었다.

③ 사랑하는 마음이 반드시 반대인 미움으로 변했다.

④ 말의 순서는 달라졌지만 사랑하는 주체와 대상은 같다.

정답·해설 →

23

>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다.

이 문장만 보고 '주객전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까닭은?

① 주객전도에는 반드시 사람이 둘 이상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② 주체와 대상이 원래 관계에서 뒤바뀌었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③ 주객전도는 문장이 물음표로 끝나야 하기 때문이다.

④ 사물이 문장의 주어가 되면 문법적으로 틀리기 때문이다.

정답·해설 →

24

> 기쁜 소식을 품고 돌아온 나는 활짝 웃었다.
> 담장의 넝쿨도 나처럼 기뻐서 손뼉을 쳤다.

이 표현에 대한 판단으로 적절한 것은?

① 넝쿨에는 의인법과 감정 이입이 함께 나타난다.

② 감정 이입이므로 넝쿨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기능은 없다.

③ 화자가 웃었으므로 넝쿨도 실제로 손뼉을 칠 수 있음을 증명했다.

④ 넝쿨이 주어이므로 주객전도가 반드시 성립한다.

정답·해설 →

25

> 나는 빈둥거린 시간이 부끄럽다.
> 느티나무는 나를 꾸짖듯 굵은 손가락을 뻗는다.

적절한 판단은?

① 의인법은 나타나지만 나무도 부끄러워한다고 표현한 것은 아니다.

② 나무는 사람처럼 표현되지 않았으므로 의인법이 없다.

③ 나무가 화자와 같은 부끄러움을 느끼므로 감정 이입이 확실하다.

④ 화자가 나무를 꾸짖는 실제 행동이 제시되었다.

정답·해설 →

26

> (가) 외로움은 어깨 위에 쌓이는 차가운 눈이다.
> (나) 나는 숲을 잊지 못했다. 그 마음을 '숲이 나를 잊지 못했다.'라고 노래했다.
> (다) 다시 찾았다, 나는 어린 날의 강을.

각 표현의 특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가) 도치 / (나) 관념의 구체화 / (다) 주객전도
② (가) 주객전도 / (나) 도치 / (다) 관념의 구체화
③ (가) 관념의 구체화 / (나) 감정 이입만 / (다) 주객전도
④ (가) 관념의 구체화 / (나) 주객전도 / (다) 도치

정답·해설 →

27

> 한 학생이 "대상에 '슬프다'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 화자의 마음을 살피지 않아도 감정 이입이다."라고 했다.

이 판단을 고친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정서가 서로 다를수록 같은 감정의 이입이 더 분명하다.
② 독자가 슬프게 읽으면 화자의 감정은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③ 대상이 자연물이면 어떤 감정이든 감정 이입이다.
④ 화자의 감정도 확인하고 그 감정을 대상에 부여했는지 살펴야 한다.

정답·해설 →

28

> 나는 오래된 작업실을 차마 떠나지 못했다.
> "작업실이 나를 꼭 붙들고 놓지 않는구나."

이 표현으로 드러나는 화자의 마음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말의 순서만 바꾸어 작업실이 실제로 움직이지 않음을 증명한다.
② 작업실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강조한다.
③ 작업실의 실제 자물쇠 고장을 알려 주어 수리 방법을 설명한다.
④ 머물고 싶은 마음을 작업실이 붙드는 것으로 바꾸어 작업실에 대한 애착을 드러낸다.

정답·해설 →

2부 〈보기〉와 작품을 연결하는 방법



작품과 〈보기〉를 연결하는 네 칸

확인 항목	찾은 내용
〈보기〉의 정보·조건	
작품 근거	
연결한 해석	
단정하지 않을 것	

아래 설명과 새 작품의 해설에서도 이 네 항목을 사용합니다.

E13 〈보기〉에서 처음 알게 된 정보도 해석에 쓸 수 있나요?

> **한 줄 답:** 네. 〈보기〉가 제공한 배경 정보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작품의 어느 표현과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기〉는 시험에서 작품과 함께 주어지는 글 상자입니다.

용어	뜻 한 줄	확인 질문
배경·해석을 돕는 〈보기〉	작가·시대·소재·상황 등에 관한 정보나 해석의 실마리를 제공함	새 정보가 작품의 어떤 부분을 이해하게 하는가?

> **작품** 떠나는 배의 난간에 노란 천을 묶었다.
> 돌아올 날까지 그 매듭을 풀지 않으리.
>
> **〈보기〉** 이 작품 속 마을에서는 노란 천을 귀환의 약속으로 묶는다.

확인 항목	찾은 내용
〈보기〉의 정보·조건	이 작품 속 마을에서 노란 천은 귀환의 약속임
작품 근거	'돌아올 날까지 그 매듭을 풀지 않으리'
연결한 해석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지키려 함
단정하지 않을 것	모든 시의 노란 천이 같은 의미라는 해석

✕ 흔한 착각	○ 바른 판단
작품에 없던 정보는 모두 근거 없는 추정이다	〈보기〉가 명시한 정보는 작품 해석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이 〈보기〉의 노란 천은 다른 모든 시에서도 같은 뜻이다	정보가 적용되는 작품·상황의 범위를 지킨다.

E14 〈보기〉가 '이 조건으로 읽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 **한 줄 답:** 〈보기〉가 정한 개념·관점·조건을 확인하고, 작품에서 그 조건을 충족하는 근거를 찾습니다.

용어	뜻 한 줄	확인 질문
판단 조건을 제시하는 〈보기〉	어떤 개념이나 관점으로 판단할지 정해 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건이 무엇인가?

'관점·방향·초점에 주목하라'는 말도 **무엇을 기준으로 볼지 정해 준다**는 점에서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보기〉** 다음에서는 화자가 자신의 감정을 대상도 느끼는 것처럼 표현했는지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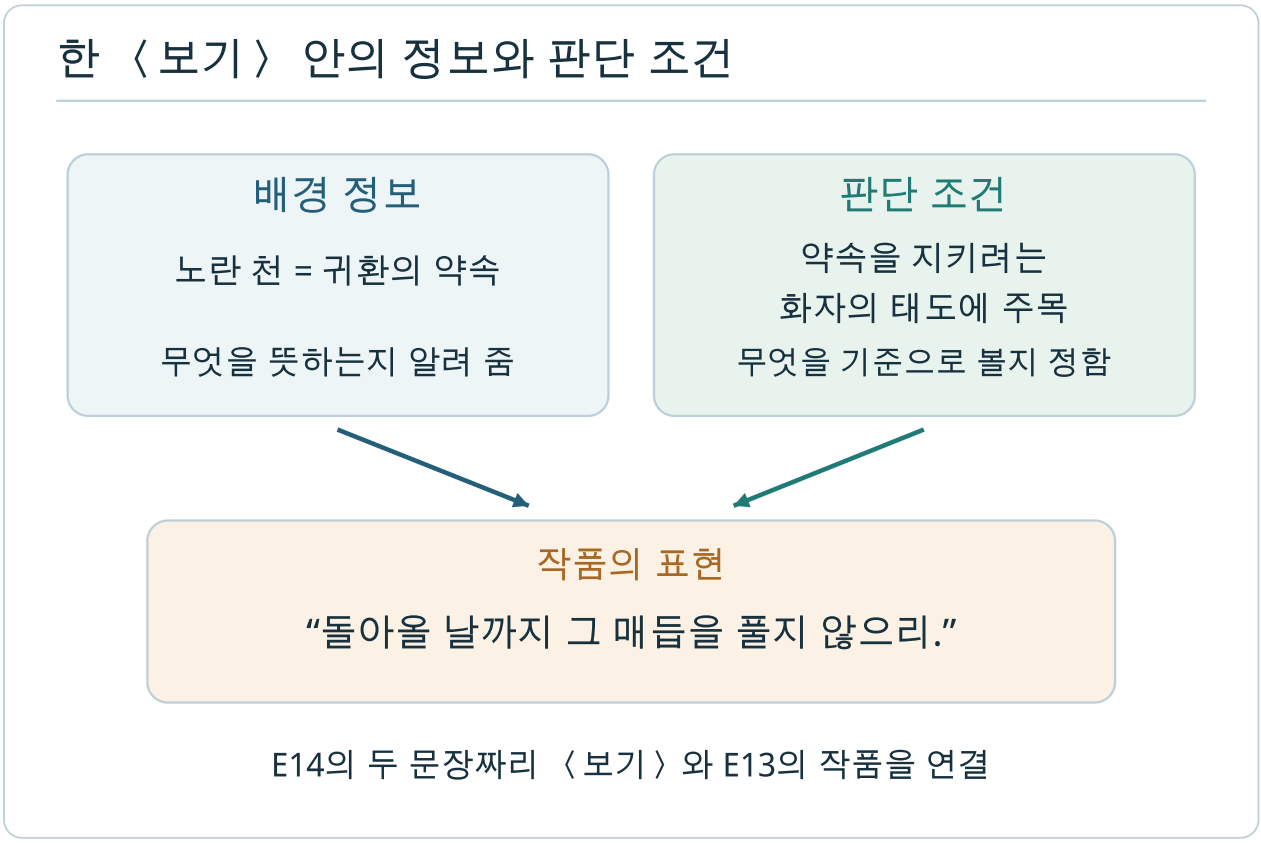
작품의 표현	조건에 맞는가?	이유
이긴 것이 신나는 나처럼 깃발도 신나게 춤춘다.	○	화자의 신남을 깃발에도 부여함
나는 속상한데 깃발은 내 마음도 모르고 흥겹게 춤춘다.	✕	사람처럼 표현했지만 화자와 대상의 감정이 다름

한 〈보기〉 안에 배경 정보와 판단 조건이 함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역할을 구별하되 〈보기〉를 반드시 둘 중 하나로만 분류하지 않습니다.

정보와 판단 조건이 함께 있는 〈보기〉

> 이 작품 속 마을에서는 노란 천을 귀환의 약속으로 묶는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약속을 지키려는 화자의 태도에 주목하자.

첫 문장은 **배경 정보**, 둘째 문장은 **판단 조건**입니다. E13의 작품에 연결해 봅니다.



✕ 흔한 착각	○ 바른 판단
〈보기〉의 핵심 낱말이 선지에 있으면 맞다	그 낱말이 가리키는 조건까지 충족해야 한다.

✕ 흔한 착각	○ 바른 판단
아는 개념이면 〈보기〉의 조건은 생략해도 된다	이 문항이 요구하는 판단 범위를 먼저 확인한다.

E15 가능한 상상과 근거 있는 해석은 어떻게 다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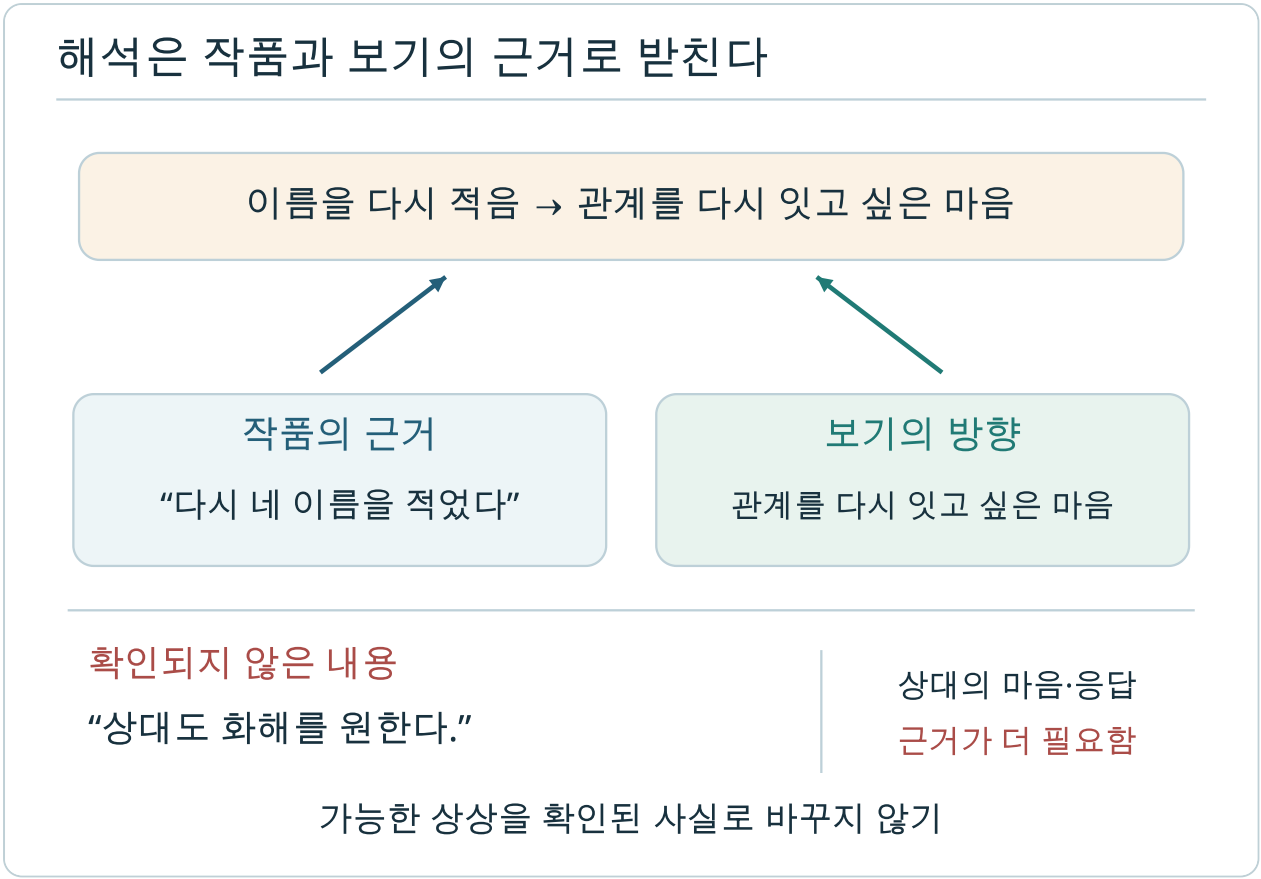
한 줄 답: 그럴듯한 이야기보다 작품·〈보기〉에 제시된 단서가 해석을 뒷받침하는지 봅니다.

작품 네가 돌려준 공책을 펼쳤다.
비어 있는 마지막 장에 다시 네 이름을 적었다.

〈보기〉 이 작품에서는 멀어진 관계를 다시 잇고 싶어 하는 마음에 주목한다.

확인 항목	찾은 내용
〈보기〉의 정보·조건	멀어진 관계를 다시 잇고 싶어 하는 마음
작품 근거	'다시 네 이름을 적었다'
연결한 해석	이름을 다시 적는 행동에 관계 회복의 바람이 담김
단정하지 않을 것	상대의 화해 의사, 다툼의 시기·원인

내용	글에서 알 수 있는가?	선지가 이렇게 단정하면
이름을 다시 적는 행동에 관계 회복의 바람이 담겼다.	○	적절함
상대도 화해를 원한다.	△	적절하지 않음
두 사람은 지난봄에 공책 문제로 싸웠다.	△	적절하지 않음



△인 내용을 사실로 단정한 선지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현실에서 가능하다는 것과 지문에서 확인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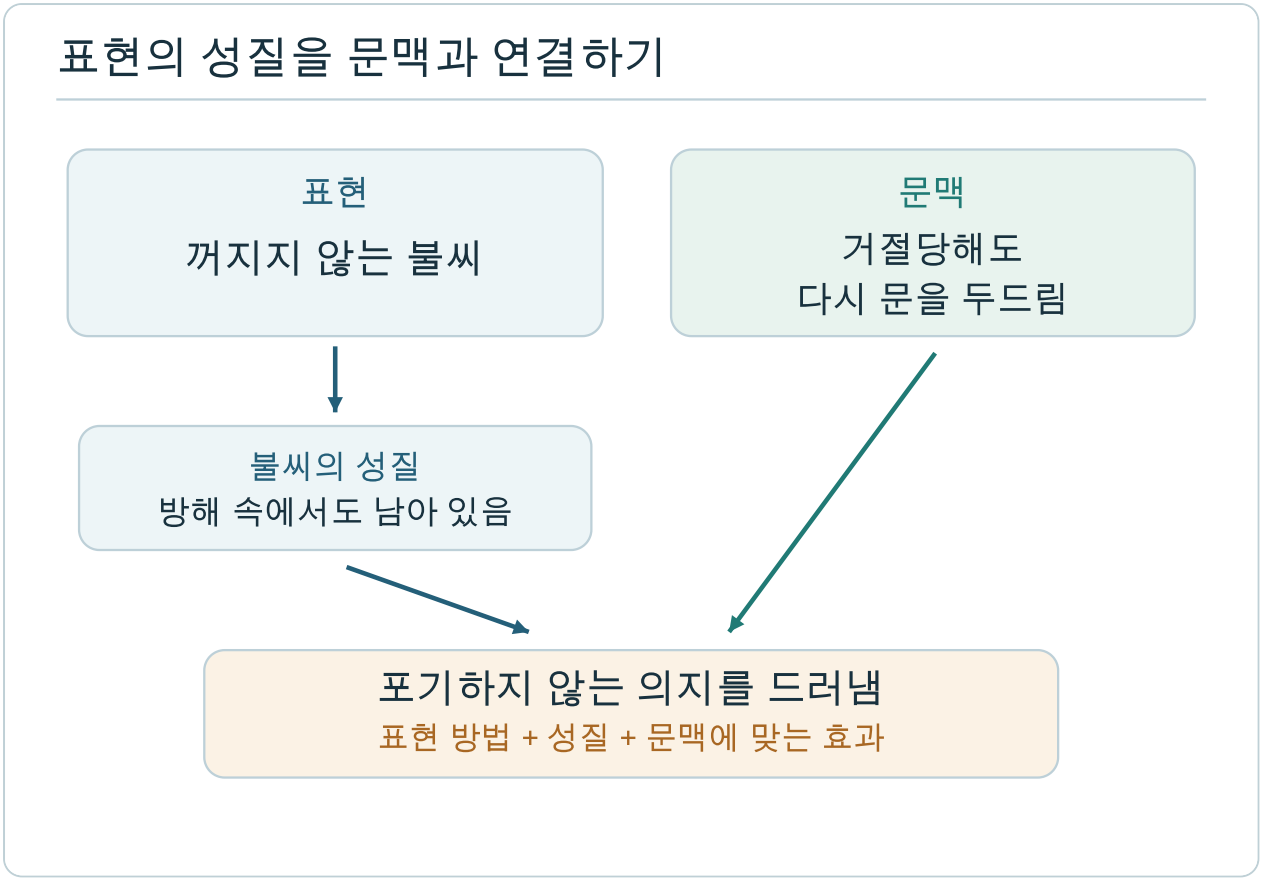
✕ 흔한 착각	○ 바른 판단
구체적인 사연을 덧붙일수록 좋은 해석이다	근거 없는 시기·원인·인물 관계를 더하지 않는다.
판단 보류는 아무 해석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확인되는 마음은 해석하되, 확인되지 않는 사실은 단정하지 않는다.

E16 표현 기법을 찾은 뒤에는 무엇을 설명하나요?

한 줄 답: 그 표현이 어떤 성질·감정·태도·상황을 두드러지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 여러 번 거절당해도 다시 문을 두드리는 너.
> 너의 의지는 바람에도 꺼지지 않는 불씨다.

표현의 근거	방법	두드러지는 성질	문맥에 맞는 효과
의지는 꺼지지 않는 불씨	은유·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방해 속에서도 계속 남아 있음	거절에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를 드러냄



효과 설명	판단
의미를 강조하여 인상 깊게 한다.	너무 넓음 — 무엇을 강조하는지 빠짐
꺼지지 않는 불씨에 빗대어 포기하지 않는 의지를 드러낸다.	적절함 — 표현·성질·문맥이 연결됨
불씨가 위태로우므로 이미 완전히 포기했음을 드러낸다.	부적절함 — '꺼지지 않는'과 '다시'를 무시함

✕ 흔한 착각	○ 바른 판단
불씨는 언제나 희망, 돌은 언제나 절망이다	어떤 성질이 선택되었는지 문맥에서 확인한다.
같은 기법이면 효과도 늘 같다	표현된 내용과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효과가 달라진다.

E17 맞는 낱말이 많은 선지도 틀릴 수 있나요?

> **한 줄 답:** 네. 누가 누구에게, 무엇 때문에, 어느 범위에서 그런지 연결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 팀을 떠난 동생이 남긴 운동화를 보며
> 나는 함께 달리던 날을 그리워한다.
> 동생이 요즘 어떤 마음인지는 알지 못한다.

확인할 관계	잘못 연결한 해석	고쳐 읽기
주체·대상	동생이 나를 그리워한다.	그리워하는 주체는 '나'이다.
원인·결과	그리워했기 때문에 동생이 팀을 떠났다.	동생의 부재와 운동화가 그리움을 불러온다.
범위·정도	나는 세상의 모든 운동화를 미워한다.	특정 운동화에 얽힌 그리움이며 미움은 제시되지 않았다.
확인된 사실·추정	동생도 다시 팀에 돌아오려 한다.	동생의 마음은 알지 못한다고 했다.

틀린 내용의 유형

꼬리표	뜻	예
[반대]	글의 내용과 반대로 읽음	포기하지 않는데 '이미 완전히 포기했다'고 함(E16)
[주체 바뀜]	누가 누구에게인지 뒤바꿈	동생이 나를 그리워한다고 함
[원인 바뀜]	원인·결과를 뒤집거나 원인을 지어냄	그리워했기 때문에 동생이 떠났다고 함
[범위 넘침]	글보다 넓게·세게 말함	세상의 모든 운동화를 미워한다고 함
[근거 없음]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로 단정함	동생도 다시 돌아오려 한다고 함

한 선지에 여러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해설에는 **핵심 오류**를 표시합니다.



‘모두·언제나·완전히’가 무조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글이 그 범위까지 뒷받침하는지가 기준입니다.

E18 〈보기〉와 작품을 한 번에 연결하려면 무엇을 남기나요?

한 줄 답: 〈보기〉의 정보·조건, 작품의 근거, 둘을 연결한 해석을 짧게 남기고 선지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작품 비바람이 지나도 우리는 꺾인 묘목 곁에 새 지지대를 세웠다.
〈보기〉 이 작품에서는 어려움 뒤에도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의 태도에 주목한다.

확인 항목	찾은 내용
〈보기〉의 정보·조건	어려움 뒤에도 이어지는 돌봄
작품 근거	‘비바람이 지나도’, ‘우리는’, ‘새 지지대를 세웠다’

확인 항목	찾은 내용
연결한 해석	함께 다시 지지대를 세우는 행동에 돌봄을 지속하려는 태도가 나타남
단정하지 않을 것	묘목이 이미 완전히 회복했다는 결과

대상·행동·감정·표현·효과는 **나누어 살필 항목**입니다. 모든 문제에서 반드시 같은 순서로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확인·적용 문제 29~44

29

작품
나는 산길의 갈림목에 붉은 등 하나를 걸었다.
늦게 돌아올 네 발이 길을 잃지 않도록.

〈보기〉
이 작품 속 마을에서 붉은 등은 밤길을 안내하는 표지로 쓰인다.

〈보기〉를 활용한 해석으로 적절한 것은?

① 등을 거는 행동에는 상대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② 〈보기〉의 정보는 작품 밖에 있으므로 등과 연결해서는 안 된다.
③ 붉은 등을 걸었으므로 상대는 이미 집에 도착했다.
④ 붉은 등은 모든 시에서 이별을 뜻하므로 화자는 상대를 떠나보내려 한다.

정답·해설 →

30

〈보기〉
이 작품 속 마을에서는 돌탑을 함께 쌓으며 서로의 안전을 빈다. 이 점을 바탕으로, 함께하는 행동에 담긴 공동체의 마음을 살펴보자.

〈보기〉의 역할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돌탑을 쌓는 행동은 언제나 같은 효과를 낸다고 일반화한다.
② 배경 정보가 있으므로 감상의 방향은 제시하지 않는다.
③ 마을의 풍습에 관한 정보와 감상의 초점을 함께 제시한다.
④ 작가가 실제 어느 마을에 살았는지를 확정한다.

정답·해설 →

31

〈보기〉
감정 이입을 판단하려면 ㉠ 화자의 감정을 확인하고, ㉡ 그 감정을 대상도 느끼는 것처럼 표현했는지 살펴야 한다.

㉠과 ㉡을 모두 충족하는 것은?

① 나는 선거에서 떨어져 낙심했다. 길가의 풀도 나처럼 낙심하여 어깨를 늘어뜨렸다.
② 나는 선거에서 떨어져 낙심했다. 길가에는 풀이 무성하게 자랐다.
③ 풀들이 슬프게 속삭였다. 나는 그 곁을 지나갔다.
④ 나는 들떠 있었지만 풀들은 이별이 슬퍼 울고 있었다.

정답·해설 →

32

작품
고향을 떠난 지 십 년, 나는 오래된 정류장을 다시 찾았다.

〈보기〉
이 작품의 화자는 오랜만에 고향을 방문한 사람으로 설정되어 있다.

주어진 근거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① 정류장은 십 년 전에 철거되어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
② 화자는 고향 사람들과 다툰 탓에 떠났다.
③ 실제 작가는 정확히 십 년 동안 해외에서 살았다.
④ 작품 속 화자는 고향을 떠난 뒤 오랜 시간이 지나 돌아왔다.

정답·해설 →

33

> 형이 기차를 타고 떠난 뒤, 역에 남은 나는 형이 건넨 도시락을 보며 허전해했다.

이 글에서 누가, 무엇을 보고, 어떤 마음을 느끼는지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형이 화자의 도시락을 보며 역에서 허전해한다.

② 화자가 허전해했기 때문에 형이 도시락을 버리고 떠났다.

③ 역에 남은 화자가 도시락을 보며 형의 부재를 느낀다.

④ 형이 허전함을 없애려고 화자를 역에 남겼다고 명시되어 있다.

정답·해설 →

34

> 올해의 첫 경기에서 진 뒤 나는 한동안 코트에 가지 않았다.
> 한 달 뒤, 다시 라켓을 잡았다.

화자의 행동 변화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첫 경기에서 졌다는 내용은 화자의 추측일 뿐이다.

② 한 번 패배한 뒤 운동 자체를 평생 완전히 포기했다.

③ 한동안 경기를 멀리했지만 다시 시작하려는 행동을 보인다.

④ 라켓을 다시 잡았으므로 그 뒤 모든 경기에서 이겼다.

정답·해설 →

35

> 남들이 비웃어도 약속을 바꾸지 않겠다.
> 내 결심은 땅속 깊이 박힌 바위다.

표현과 효과를 연결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깊이 박힌 바위의 흔들리지 않는 성질로 굳은 결심을 드러낸다.

② 바위가 등장하므로 어떤 문맥에서도 감정 이입으로만 설명해야 한다.

③ 바위가 결심하는 주체가 되어 화자와 같은 뜻을 품는다.

④ 바위의 무거움으로 이미 약속을 지키지 못한 후회를 드러낸다.

정답·해설 →

36

> 나는 사과의 편지를 우편함에 넣었다.
> 아직 답장은 오지 않았다.

확인된 사실과 해석을 바르게 구별한 것은?

① 답장이 없으므로 상대는 영원히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② 화자가 사과를 전했음은 알 수 있지만 상대가 받아들였는지는 아직 모른다.

③ 화자가 사과했으므로 상대도 이미 용서한 것이 확실하다.

④ 상대의 반응을 모르므로 화자가 편지를 썼는지도 판단할 수 없다.

정답·해설 →

37

> 어제는 길가의 작은 싹을 보지 못했다.
> 오늘은 걸음을 멈추고 그 곁의 쓰레기를
> 주웠다.

화자의 변화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① 싹이 죽은 것을 확인한 뒤 자연 전체를 원망한다.

② 이제 화자는 모든 생명의 사정을 완벽히 이해한다.

③ 어제와 오늘의 행동은 완전히 같아 태도 변화가 없다.

④ 지나치던 작은 생명에 관심을 기울이고 돌보는 행동을 한다.

정답·해설 →

38

> **작품**
> 내가 쥔 우산을 네 쪽으로 조금 더 기울였다.
> 내 어깨는 젖어도 네 책은 젖지 않도록.
>
> **〈보기〉**
> 사소한 행동에 담긴 상대에 대한 배려에 주목하자.

〈보기〉와 가장 직접 연결되는 작품의 근거는?

① 비가 오는 계절이 반드시 여름이라는 추정

② '네 쪽으로 조금 더 기울였다'와 '네 책은 젖지 않도록'

③ 우산이라는 소재의 일반적인 가격

④ 화자와 상대가 몇 년 동안 알던 사이인지에 대한 상상

정답·해설 →

39

> **작품**
> 넘어진 뒤에도 우리는 끊어진 연줄을 다시 이었다.
> 다시 띄울 날을 기다리며.
>
> **〈보기〉**
> 실패 뒤에도 시도를 이어 가려는 태도에 주목하자.

적절한 감상은?

① 넘어졌다는 말이 있으므로 화자는 모든 시도를 끝냈다.

② 연줄을 다시 잇는 행동이 재도전을 준비하는 태도를 보여 준다.

③ 연줄은 그저 도구이므로 태도를 드러내는 데 관여하지 않는다.

④ 연줄을 이었으므로 연이 이미 하늘 높이 날아올랐다.

정답·해설 →

40

> **작품**
> 두려움은 내 발목에 달라붙은 젖은 진흙이었다.
> 그래도 나는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다.
>
> **〈보기〉**
> 추상적 감정이 어떤 모습으로 구체화되는지, 그 감정에 화자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살펴보자.

〈보기〉의 두 요구를 모두 반영한 것은?

① 두려움을 진흙으로 나타내어 끝내 움직임을 포기했음을 보여 준다.

② 진흙이 있으므로 처음부터 두려움이 없었던 용감한 사람임을 드러낸다.

③ 두려움을 움직임을 방해하는 진흙으로 나타내고, 그 속에서도 나아가는 태도를 보인다.

④ 앞으로 나아가는 행동만으로 진흙의 모습과 무관하게 모든 감정이 사라졌다고 본다.

정답·해설 →

41

> 망설임은 발목에 감긴 질긴 덩굴이었다. 대답해야 할 때마다 나는 한 걸음도 떼지 못했다.

추상적 관념과 구체적 대상을 각각 쓰고, 그 대상의 어떤 성질을 빌렸는지 한 가지 쓰세요.

추상적 관념: _____

구체적 대상: _____

빌린 성질: _____

정답·해설 →

42

> [실제 상황] 나는 해 질 때까지 강을 바라보았다.
> [그 상황을 바꾸어 표현한 말] 강이 해 질 때까지 나를 바라보았다.

바꾸어 표현한 말에서 '바라보는 주체 → 대상'을 쓰고, 실제 상황과 비교한 표현 방식의 이름을 쓰세요.

바라보는 주체: _____ → 대상: _____

표현 방식: _____

정답·해설 →

43

> **작품**
> 허물어진 돌담 앞에 나는 다시 돌을 모았다. 혼자서는 들지 못할 돌 앞에 친구도 손을 보탰다.
>
> **〈보기〉**
> 어려움 속에서 힘을 합쳐 생활을 회복하려는 태도에 주목하자.

〈보기〉의 해석을 뒷받침하는 작품의 표현 두 가지를 쓰세요. 하나는 다시 시작하는 행동, 다른 하나는 힘을 합치는 행동에서 찾으세요.

다시 시작하는 행동: _____

힘을 합치는 행동: _____

정답·해설 →

44

> **작품**
> 갈라진 밭에 우리는 물길을 냈다. 아직 싹이 보이지 않아도 내일 다시 오기로 했다.
>
> **〈보기〉**
> 당장 성과가 없어도 돌봄을 이어 가려는 태도에 주목하자.

다음 해석에서 근거 없이 단정한 부분을 고쳐 한 문장으로 쓰세요. "내일 다시 오기로 했으므로, 싹이 이미 모두 자라 돌봄이 끝났다."

답: _____

정답·해설 →

3부 새 작품에 적용하기

자료 A · 「문틀 앞에서」 · Q45~Q48

폐교 소식이 전해진 저녁
나는 우리 키를 재던 문틀을 쓰다듬었다.
연필로 그은 금이 아직 남아 있었다.
그 앞에서 웃음소리들이 그리웠다.
떠나려니 나는 서운했다.
문틀도 서운한지 나와 함께 한숨을 쉬었다.
차에 오르려다 나는 그 문틀을 놓지 못했다.
문틀이 나를 놓지 못했다.



키를 잰 자국이 남은 문틀

〈보기〉
이 작품에서는 어린 시절의 공간에 남은 흔적이 화자의 기억과 애착을 드러낸다. 대상에 부여된 감정과 주체·대상의 변화도 살펴보자.

45

자료 A의 '연필로 그은 금'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① 어린 시절의 성장을 떠올리게 하여 지나간 시간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낸다.
② 자신도 학교를 떠나기 싫어 슬퍼하는 주체로 직접 표현된다.
③ 새로운 키를 재는 현재의 행동만 나타내어 과거와의 관련을 끊는다.
④ 학교를 떠나게 된 원인을 정확히 밝혀 화자의 분노를 해소한다.

정답·해설 →

46

자료 A에서 '문틀도 서운한지 나와 함께 한숨을 쉬었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문틀이 객관적 상관물이므로 감정 이입은 성립하지 않는다.
② 화자의 서운함을 문틀에도 부여하여 의인법과 감정 이입이 함께 나타난다.
③ 문틀이 한숨을 쉬는 표현만으로 실제 작가의 감정이 증명된다.
④ 문틀은 즐겁고 화자는 서운하므로 정서가 대비된다.

정답·해설 →

47

자료 A의 마지막 두 행에서 나타나는 관계와 효과는?

① 놓지 못하는 주체를 나에서 문틀로 바꾸어 공간에 대한 애착을 드러낸다.

② 문틀이 화자를 싫어하여 내보내는 행동으로 이별의 완료를 드러낸다.

③ 같은 주체와 대상을 유지한 채 어순만 바꾸어 감정의 변화를 없앤다.

④ 화자의 행동을 모두 문틀의 실제 능력으로 바꾸어 폐교 원인을 설명한다.

정답·해설 →

48

자료 A와 〈보기〉를 함께 읽은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연필 금이 현재의 그리움을 불러오므로 화자는 학교의 모든 친구와 지금도 함께 지낸다.

② 문틀에 남은 키 자국은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③ 문틀이 한숨을 쉰다는 표현에는 사람의 행동을 부여한 의인법이 나타난다.

④ 문틀이 나를 놓지 못했다는 표현은 그 공간을 떠나기 어려운 애착과 연결된다.

정답·해설 →

자료 B · 「남은 분필」 · Q49~Q52

선생님이 다른 학교로 가신 뒤
교탁 귀퉁이의 짧은 분필을 주웠다.
서툰 풀이도 끝까지 들어 주시던 선생님.
나는 지우개를 내려놓고
아직 서툰 친구의 풀이를 끝까지 들었다.
기다려 주는 마음은
문턱이 낮고
쉽게 닫히지 않는 문이었다.



닳아서 짧아진 분필

〈보기〉
이 작품에서는 물건이 불러온 기억이 화자의 현재 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주목할 수 있다. 기억을 떠올리는 데서 그치는지, 기억 속 태도를 이어 가는지도 살펴보자.

49

자료 B에서 '짧은 분필'의 기능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① 선생님의 태도를 떠올리게 하여 현재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된다.
② 선생님의 이동이 거짓이었음을 밝히는 결정적인 증거이다.
③ 화자의 답답함을 그대로 느끼고 친구에게 화를 내는 대상이다.
④ 친구의 풀이를 빨리 지우라는 선생님의 지시를 대신 전달한다.

정답·해설 →

50

자료 B의 '문턱이 낮고 쉽게 닫히지 않는 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문이 화자를 기다리는 주체가 되어 앞의 주체·대상 관계를 뒤집는다.
② 실제 교실 문의 높이를 측정하여 건물의 안전성을 판단한다.
③ 기다려 주는 마음을 문으로 구체화하여 상대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드러낸다.
④ 문이 쉽게 닫히지 않으므로 화자가 친구의 말을 끝내 거절함을 드러낸다.

정답·해설 →

51

자료 B와 〈보기〉를 함께 읽은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분필을 주운 일이 선생님의 태도를 떠올리는 계기가 된다.

② 기다려 주는 마음을 쉽게 닫히지 않는 문으로 표현하여 수용하는 태도를 드러낸다.

③ 화자는 친구의 풀이를 끝까지 듣는 행동으로 기억 속 태도를 이어 간다.

④ 친구의 풀이를 끝까지 들었으므로 화자는 그 풀이가 모두 맞다고 인정한 것이다.

정답·해설 →

52

자료 B의 표현을 구별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분필과 문 모두 화자의 감정을 스스로 느끼는 것으로 표현된다.

② 분필은 기억을 불러오는 대상이고, 문턱이 낮은 문은 기다려 주는 마음을 구체화하는 대상이다.

③ 문은 구체적인 대상이므로 추상적 마음을 드러내는 데 사용될 수 없다.

④ 분필에 기억이 연결되므로 문을 통한 관념의 구체화는 성립할 수 없다.

정답·해설 →

자료 C · 「항구의 푸른 매듭」 · Q53~Q56

출항하는 누나의 가방에
나는 푸른 실을 세 번 감아 묶었다.
바람아, 이 매듭만은 풀지 말아다오.
배가 수평선 너머로 사라져도
돌아올 날을 기다리며 나는 손을 흔들었다.
그리움은 긴 물결이 되어
멀어진 배의 뒤를 오래 따라갔다.



가방 손잡이에 감아 묶은 푸른 실

〈보기〉
이 작품 속 마을에서는 푸른 실을 묶어 무사한 귀환을 기원한다. 이 배경을 바탕으로 화자의 행동에 담긴 바람과, 추상적 감정을 구체화한 표현을 살펴보자.

53

자료 C의 〈보기〉와 '푸른 실'을 연결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실을 묶었으므로 누나의 항해가 이미 성공적으로 끝났다.
② 가방에 실을 묶는 행동은 누나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과 연결된다.
③ 실을 세 번 감았으므로 누나가 세 번 이별했다는 과거가 확인된다.
④ 푸른 실은 실제 모든 항구에서 같은 뜻으로 쓰이는 관습이다.

정답·해설 →

54

자료 C에서 '바람아, 이 매듭만은 풀지 말아다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바람을 말을 알아들을 상대처럼 대하지만 화자의 그리움을 바람도 느낀다고 하지는 않는다.
② 바람에게 부탁하는 형식이므로 화자의 바람은 드러나지 않는다.
③ 바람의 대답이 이어져 두 존재가 대화를 완성한다.
④ 바람에게 말을 걸었으므로 바람도 반드시 누나를 그리워한다.

정답·해설 →

55

자료 C의 마지막 두 행이 나타내는 방식과 효과는?

① 구체적 그리움을 추상적 물결로 바꾸어 감각적인 느낌을 줄인다.

② 그리움을 긴 물결로 구체화하여 멀어지는 누나를 향한 마음의 지속을 드러낸다.

③ 물결의 움직임을 없애 정서가 완전히 멎었음을 보여 준다.

④ 물결이 화자의 그리움을 실제로 없애 주어 이별이 잊혔음을 보여 준다.

정답·해설 →

56

자료 C와 〈보기〉를 함께 읽은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푸른 실을 묶는 행동은 누나의 무사한 귀환을 바라는 마음과 연결된다.

② 바람에게 부탁하는 말에서는 바람을 청자로 삼는 방식이 나타난다.

③ 그리움을 긴 물결로 나타낸 표현은 누나를 향한 마음의 지속을 드러낸다.

④ 배가 보이지 않게 되자 화자는 누나의 귀환을 기다리는 마음을 완전히 버린다.

정답·해설 →

4부 앞선 개념과 함께 읽기

앞선 편 개념 다시 보기

개념	뜻 한 줄	배운 곳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 (순행)	실제 시간의 앞뒤 순서에 따라 전개함	03편 E09
대구법	같거나 비슷한 문장 구조를 나란히 짝짓는 표현	04편 E11
도치법	일반적인 말의 순서를 바꾸는 표현	04편 E16
의인법	사람이 아닌 대상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방법이다.	02편 E15
은유법	‘A는 B이다’처럼 닮은 두 대상을 같은 것으로 놓아 빗대는 방법이다.	02편 E14

자료 D · 「다시 심는 아침」 · Q57~Q60

어제의 폭우에 텃밭이 쓰러졌다.
나는 부러진 지지대를 모으고
너는 흩어진 씨앗을 주웠다.
오늘 아침, 아직 젖은 흙에 우리는 씨앗을 심는다.
포기는 없다, 우리 작은 밭에는.
희망은 흙 속에서 다시 켜는 불빛.
우리는 기다리리, 새잎이 고개를 들 때까지.



젖은 텃밭에서 다시 심을 준비를 하는 손

〈보기〉
어려움을 겪은 뒤 다시 시작하는 행동과 희망을 드러내는 표현에 주목하자. 앞으로의 기대를 이미 이루어진 결과와 구별한다.

57

자료 D의 시상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오늘의 성공을 먼저 제시한 뒤 어린 시절로 거슬러 간다.

② 모든 행에서 같은 시간과 같은 행동만 되풀이한다.

③ 어제의 피해와 오늘의 행동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여 준다.

④ 화자가 먼 도시로 이동하는 여정을 따라 장소만 차례로 바꾼다.

정답·해설 →

58

자료 D의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포기는 없다, 우리 작은 밭에는'은 밭이 포기하는 주체로 바뀐 주객전도이다.

② '새잎이 고개를 들 때까지'에 화자의 절망이 새잎에도 직접 이입된다.

③ '나는'과 '너는'이 나오므로 두 사람이 말과 대답을 주고받는다.

④ '나는…모으고 / 너는…주웠다'는 유사한 문장 구조를 나란히 놓아 두 사람의 행동을 보여 준다.

정답·해설 →

59

자료 D의 '희망은 흙 속에서 다시 켜는 불빛'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빛을 껐다고 했으므로 희망을 버린 태도를 드러낸다.

② 불빛이 화자를 희망하는 주체로 바뀌어 주객전도를 이룬다.

③ 희망을 불빛으로 구체화하여 다시 시작하려는 마음을 드러낸다.

④ 희망과 불빛의 이름이 다르므로 둘 사이에 비유 관계가 없다.

정답·해설 →

60

자료 D와 〈보기〉를 함께 읽은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씨앗을 함께 심고 기다리기로 했으므로 새잎은 이미 모두 자라 회복이 끝났다.

② 어제의 피해에서 오늘의 파종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된다.

③ 두 사람이 지지대와 씨앗을 모으는 행동에서는 다시 시작하려는 협력이 나타난다.

④ 희망을 다시 켜는 불빛에 빗대어 어려움 뒤에도 시도를 이어 가는 마음을 드러낸다.

정답·해설 →

빠른 정답

문항	정답	문항	정답	문항	정답
Q01	③	Q21	③	Q41	짧은 답
Q02	③	Q22	④	Q42	짧은 답
Q03	①	Q23	②	Q43	짧은 답
Q04	④	Q24	①	Q44	짧은 답
Q05	②	Q25	①	Q45	①
Q06	②	Q26	④	Q46	②
Q07	②	Q27	④	Q47	①
Q08	①	Q28	④	Q48	①
Q09	②	Q29	①	Q49	①
Q10	④	Q30	③	Q50	③
Q11	④	Q31	①	Q51	④
Q12	①	Q32	④	Q52	②
Q13	③	Q33	③	Q53	②
Q14	③	Q34	③	Q54	①
Q15	②	Q35	①	Q55	②
Q16	②	Q36	②	Q56	④
Q17	③	Q37	④	Q57	③
Q18	④	Q38	②	Q58	④
Q19	③	Q39	②	Q59	③
Q20	④	Q40	③	Q60	①

Q41~Q44는 해설의 예시 답안과 인정 기준을 확인하세요.

정답과 해설

해설 표의 '정답 여부': ○는 고를 선지, ×는 고르지 않을 선지입니다. '유형'은 선지 내용에 있는 오류를 뜻합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는 Q48·Q51·Q56·Q60에서는 정답 선지에 오류 유형이 붙습니다.

A01 정답 ③

판단 근거: 안경의 흠집이 아버지와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여 그리움을 드러낸다.

선지	정답 여부	해설
①	×	화자가 안경을 보며 그리워할 뿐, 안경이 그리워한다고 하지는 않았다.
②	×	안경의 흠집과 아버지의 목소리에 대한 그리움이 연결된다.
③	○	**"낡은 안경" / "목소리가 그립다"**
④	×	작가의 직업은 제시되지 않았다. 작품 속 화자와 실제 작가도 자동으로 동일시하지 않는다.

다시 볼 설명: E01 | Q01로 돌아가기

A02 정답 ③

판단 근거: 개수와 위치만 알 수 있으므로 정서를 드러내는 기능은 판단을 보류한다.

선지	정답 여부	해설
①	×	'두 개'라는 수만으로 외로움을 읽을 수는 없다.
②	×	뒤의 문맥에서 감정과의 관계가 확인될 수 있다.
③	○	**"유리병 두 개가 놓여 있다" — 정서의 근거는 없음**
④	×	대상이 감정을 느끼는지보다 먼저 화자의 마음과의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다시 볼 설명: E02 | Q02로 돌아가기

A03 정답 ①

판단 근거: 친구들의 기쁨과 화자의 쓸쓸함이 대비되고, '더욱'이 그 기능을 뒷받침한다.

선지	정답 여부	해설
①	○	**"친구들의 웃음" / "나는…더욱 쓸쓸하다"**
②	×	반대되는 장면과의 대비로도 화자의 정서가 드러날 수 있다.
③	×	미움이나 합격을 막은 행동은 제시되지 않았다.
④	×	화자의 감정은 기쁨이 아니라 쓸쓸함이다.

다시 볼 설명: E02 · E05 | Q03로 돌아가기

A04 정답 ④

판단 근거: (나)의 나무는 화자와 같이 서운해한다. (가)의 배지가 그리워한다고 하지는 않는다.

선지	정답 여부	해설
①	✕	(나)도 나무를 통해 서운함을 드러낸다.
②	✕	화자의 서운함을 나무에도 부여한 표현이며, 나무의 감정을 배웠다는 내용은 없다.
③	✕	(가)에서 그리워하는 주체는 화자이며, 배지는 그 감정을 불러오는 대상이다.
④	○	**“나처럼” / “나무도 서운해”**

다시 볼 설명: E01 · E03 | Q04로 돌아가기

A05 정답 ②

판단 근거: ‘나처럼 신나서’가 화자의 감정을 깃발에 옮겼음을 직접 보여 준다.

선지	정답 여부	해설
①	✕	독자에 대한 명령은 제시되지 않았다.
②	○	**“나처럼 신나서”**
③	✕	깃발이 실제로 감정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아니라 화자의 감정을 부여한 표현이다.
④	✕	대상의 외형을 떠올리는 것은 이 표현에서 감정 이입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다.

다시 볼 설명: E03 | Q05로 돌아가기

A06 정답 ②

판단 근거: 울음소리와 기록 행동만 있고 화자의 감정 및 새에게 부여한 같은 감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선지	정답 여부	해설
①	✕	기록 행동만으로 미움을 확인할 수 없다.
②	○	**“새가 운다” / “그 소리를…적는다”**
③	✕	감정 단어가 없어도 전체 문맥에서 같은 감정이 확인될 수 있다.
④	✕	새의 ‘울음’은 소리를 뜻할 수 있으므로 슬픔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다시 볼 설명: E03 | Q06로 돌아가기

A07 정답 ②

판단 근거: 강물에 즐겁게 노래하는 인간적 모습을 부여했으나 화자는 근심하고 있어 정서가 다르다. 이 강물은 화자의 근심과 대비되어 정서를 드러내는 객관적 상관물로도 볼 수 있다.

선지	정답 여부	해설
①	✕	의인법은 감정의 일치가 아니라 인간적 성질의 부여로 판단한다.
②	○	**“근심이 깊다” ↔ “즐겁게 노래하며”**
③	✕	화자는 근심이 깊다고 했다.
④	✕	의인법만으로 감정 이입을 확정할 수 없으며 이 예의 감정은 서로 다르다.

다시 볼 설명: E02 · E04 · E05 | Q07로 돌아가기

A08 정답 ①

판단 근거: 식물이 의논하는 인간적 행동을 한다. 그러나 화자의 감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선지	정답 여부	해설
①	○	**“소풍 날짜를 의논한다” — 화자의 감정은 제시되지 않음**
②	✕	소풍이라는 소재만으로 화자의 감정을 확정할 수 없다.
③	✕	누가 누구에게 하는 행동인지를 뒤바꾼 관계가 없다.
④	✕	사람이 아닌 해바라기가 의논하므로 의인법은 확인된다.

다시 볼 설명: E04 | Q08로 돌아가기

A09 정답 ②

판단 근거: 외로움을 부여하는 방식과 그 감정을 부여받은 화분을 구분한 설명이다.

선지	정답 여부	해설
①	✕	화분은 정서를 드러내는 대상이며, 표현하는 방법의 이름은 감정 이입이다.
②	○	**“화분도 나처럼 외로워”**
③	✕	화분이 화자의 외로움을 드러내므로 객관적 상관물로도 볼 수 있다.
④	✕	‘나처럼’이 화자와 화분의 외로움을 연결한다.

다시 볼 설명: E05 | Q09로 돌아가기

A10 정답 ④

판단 근거: 마음을 대상에 담는 것과 대상도 감정을 느끼도록 표현하는 것을 구별했다.

선지	정답 여부	해설
①	✕	화자가 동생에게 장갑을 주는 관계가 유지된다.
②	✕	걱정하고 배려하는 주체는 화자이다. 장갑의 감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③	✕	마음을 직접 밝혀도 구체적 대상인 장갑에 그 마음을 담아 나타낼 수 있다.
④	○	**“내 마음을 장갑 한 켤레에 담았다”**

다시 볼 설명: E06 | Q10로 돌아가기

A11 정답 ④

판단 근거: 대상에 어떤 마음을 담았는지를 확인해야 선지의 투영 설명을 판단할 수 있다.

선지	정답 여부	해설
①	✕	개념명이 본문에 없어도 표현과 문맥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②	✕	투영은 대상의 실제 말하는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③	✕	투영은 반드시 대상이 화자와 같은 감정을 느끼는 모습으로만 나타나지 않는다.
④	○	**바구니의 모습·쓰임 ↔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

다시 볼 설명: E06 | Q11로 돌아가기

A12 정답 ①

판단 근거: 어려움 속에서 삶을 이어 가려는 뜻을 풀에 담아 노래한다고 명시했다.

선지	정답 여부	해설
①	○	**“풀에…삶을 이어 가려는 뜻을 담아”**
②	✕	객관적 상관물은 감정뿐 아니라 생각을 드러내는 구체적 대상도 포함한다.
③	✕	노래하는 행위가 실제 자람을 일으켰다는 인과 관계는 제시되지 않았다.
④	✕	슬픔을 느낀다는 내용이 없고, 개념을 ‘감정 이입만’으로 제한할 근거도 없다.

다시 볼 설명: E05 · E06 | Q12로 돌아가기

A13 정답 ③

판단 근거: 감각으로 직접 만질 수 없는 미안함을 차가움과 소리를 가진 동전으로 나타냈다.

선지	정답 여부	해설
①	✕	주머니는 구체적인 물건이며 구체화하려는 관념은 미안함이다.
②	✕	주머니 바닥은 구체적인 장소이며, 구체화한 추상적 관념은 미안함이다.
③	○	**“미안함이 차가운 동전이 되어”**
④	✕	두 가지 모두 구체적 대상이며 이 표현이 구체화한 추상적 관념을 짚지 못한다.

다시 볼 설명: E07 | Q13로 돌아가기

A14 정답 ③

판단 근거: 추상적 감정인 기쁨을 ‘종소리’라는 청각적 모습으로 드러냈다.

선지	정답 여부	해설
①	✕	‘기쁨이 종소리로 울렸다’는 감정의 표현이다.
②	✕	종소리가 누구를 기뻐한다는 주체·대상 관계는 없다.
③	○	**“기쁨이…작은 종소리로 울렸다”**
④	✕	정의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종소리로 감각화했다.

다시 볼 설명: E07 | Q14로 돌아가기

A15 정답 ②

판단 근거: 단풍나무와 우산은 모두 구체적 대상이며 나무의 모양과 색을 우산에 빗댄 은유이다.

선지	정답 여부	해설
①	✕	단풍나무는 추상적 관념이 아니다.
②	○	**“단풍나무는…붉은 우산이다”**
③	✕	실제 물건을 교환했다는 사건이 아니라 빗대는 관계이다.
④	✕	화자의 슬픔이나 우산의 감정이 제시되지 않았다.

다시 볼 설명: E08 | Q15로 돌아가기

A16 정답 ②

판단 근거: 믿음을 밧줄에 직접 빗댄 은유이며, 추상적 믿음을 감각적인 밧줄로 나타냈다.

선지	정답 여부	해설
①	✕	밧줄도 감정을 느낀다는 표현이나 질문과 답의 구조가 없다.
②	○	**“우리의 믿음은…밧줄이다”**
③	✕	‘처럼·같이’ 등을 사용한 직유가 아니며 말을 주고받는 장면도 없다.
④	✕	통상적인 어순을 뒤집거나 답을 얻으려 묻는 문장이 아니다.

다시 볼 설명: E08 | Q16로 돌아가기

A17 정답 ③

판단 근거: 골목은 어제와 같지만 걱정이 풀린 마음으로 가볍게 느껴지는 모습으로 표현했다.

선지	정답 여부	해설
①	✕	실제 공사나 길이 변화는 없으며 골목은 어제와 같다고 했다.
②	✕	골목이 걱정을 느낀다고 하지는 않았다.
③	○	**“걱정거리가 풀린 날” / “어제와 똑같은 골목”**
④	✕	화자가 골목에 하던 행동을 골목이 화자에게 하는 관계로 뒤바꾸지 않았다.

다시 볼 설명: E09 | Q17로 돌아가기

A18 정답 ④

판단 근거: 다리 설치와 실제 거리 감소가 제시되어 있다.

선지	정답 여부	해설
①	✕	학교의 감정이나 주체·대상의 교환은 제시되지 않았다.
②	✕	거리를 적은 수만으로 그리움의 구체화가 되지 않는다.
③	✕	실제 변화 자체는 화자의 감정에 따른 변용을 뜻하지 않는다.
④	○	**“새 다리가 놓인 뒤” / “실제로 오백 미터 짧아졌다”**

다시 볼 설명: E09 | Q18로 돌아가기

A19 정답 ③

판단 근거: 수리로 크기가 바뀐 것과 같은 창문을 답답하게 느끼는 것을 구별한 설명이다.

선지	정답 여부	해설
①	✕	(가)는 수리 사실을 말하며 화자의 감정이 제시되지 않는다.
②	✕	창문은 원래 구체적인 대상이다.
③	○	**(가) “수리가 끝나” / (나) “창문은 그대로인데”**
④	✕	(가)는 넓어졌고 (나)는 실제 창문이 그대로라고 했다.

다시 볼 설명: E09 | Q19로 돌아가기

A20 정답 ④

판단 근거: 얼룩에 눈을 부릅뜨는 인간적 모습을 부여했고 걱정 속에서 대상을 위협적으로 바꾸어 표현했다.

선지	정답 여부	해설
①	✕	얼룩이 화자와 같은 걱정을 느낀다고 하지는 않았다.
②	✕	화자가 먼저 얼룩을 몰아세웠다는 원래 관계는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주객전도를 단정할 수 없다.
③	✕	화자의 걱정에 따라 그렇게 느껴진 모습이다.
④	○	**“걱정으로 잠 못 든 밤” / “심판처럼 눈을 부릅떴다”**

다시 볼 설명: E09 · E12 | Q20로 돌아가기

A21 정답 ③

판단 근거: 뒤 문장은 바다가 나를 그리워한다고 하여 앞 문장의 ‘나→바다’ 관계를 뒤바꾼다.

선지	정답 여부	해설
①	✕	앞 문장의 관계이며 뒤 문장의 관계가 아니다.
②	✕	밤낮은 시간의 지속을 나타내며 그리움의 주체·대상이 아니다.
③	○	**“그 바다가…나를 그리워한다고”**
④	✕	바다가 그리워하는 대상은 ‘나’로 제시되어 있다.

다시 볼 설명: E10 | Q21로 돌아가기

A22 정답 ④

판단 근거: 두 문장 모두 '나'가 '고장'을 사랑한다. 어순을 바꾼 도치이다.

선지	정답 여부	해설
①	✕	고장이 말하는 내용은 없다.
②	✕	바뀐 문장에도 주체는 '나', 대상은 '고장'이다.
③	✕	어순의 변화가 감정의 반대를 뜻하지 않는다.
④	○	**"나는…이 고장을" — 바뀐 뒤에도 같은 주체·대상**

다시 볼 설명: E11 | Q22로 돌아가기

A23 정답 ②

판단 근거: 바람이 창문을 흔드는 현상만 제시되었으며 뒤바뀐 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선지	정답 여부	해설
①	✕	사람과 사물 사이에서도 주객전도가 나타날 수 있다.
②	○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다" — 뒤바뀐 원래 관계는 없음**
③	✕	물음표는 주객전도의 성립 조건이 아니다.
④	✕	바람이나 사물이 주어가 되는 것 자체는 문법 오류가 아니다.

다시 볼 설명: E10 · E11 | Q23로 돌아가기

A24 정답 ①

판단 근거: 넝쿨이 손뼉을 치는 인간적 행동을 하며 화자의 기쁨도 함께 느끼는 것으로 표현된다.

선지	정답 여부	해설
①	○	**"나처럼 기뻐서 손뼉을 쳤다"**
②	✕	감정 이입의 대상인 넝쿨은 화자의 기쁨을 드러내기도 한다.
③	✕	문학적 표현을 실제 식물의 능력을 증명한 사실로 볼 수 없다.
④	✕	화자와 넝쿨의 주체·대상 관계가 교환된 것이 아니다.

다시 볼 설명: E12 | Q24로 돌아가기

A25 정답 ①

판단 근거: 꾸짖고 손가락을 뻗는 모습은 인간적이지만 나무가 화자의 부끄러움을 함께 느끼지는 않는다.

선지	정답 여부	해설
①	○	**“나는…부끄럽다” ↔ “나를 꾸짖듯”**
②	×	손가락을 뻗어 꾸짖는 인간적 성질이 부여되었다.
③	×	나무는 꾸짖는 쪽으로 표현되며 부끄러워하는 쪽은 화자이다.
④	×	나무가 화자를 꾸짖는 듯하다고 했으며 화자가 나무를 꾸짖었다고 하지는 않았다.

다시 볼 설명: E04 · E05 | Q25로 돌아가기

A26 정답 ④

판단 근거: 외로움을 눈으로 나타냈고, 잊지 못하는 관계가 ‘나→숲’에서 ‘숲→나’로 바뀌었으며, (다)는 서술어를 앞세웠다.

선지	정답 여부	해설
①	×	(가)는 기본 어순의 은유이고, (나)는 관계 교환이며, (다)는 찾는 주체가 그대로이다.
②	×	(가)는 주체·대상 교환이 없고, (나)는 관계가 뒤바뀌며, (다)는 관념을 감각화하지 않는다.
③	×	(나)에는 주체·대상 교환이 분명하고 같은 감정 부여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는 어순만 바뀌었다.
④	○	**“외로움은…눈” / “숲이 나를 잊지 못했다” / “다시 찾았다, 나는…”**

다시 볼 설명: E07 · E10 · E11 | Q26로 돌아가기

A27 정답 ④

판단 근거: 대상의 감정만으로는 부족하며 화자의 감정과의 연결이 필요하다.

선지	정답 여부	해설
①	×	서로 다른 정서를 같은 감정의 이입이라고 볼 수 없다.
②	×	독자의 반응과 작품 안의 표현 기법을 구별해야 한다.
③	×	대상이 자연물인지가 아니라 화자의 감정이 옮겨졌는지가 기준이다.
④	○	**확인할 조건: 화자의 감정 + 대상에 부여한 같은 감정**

다시 볼 설명: E02 · E03 · E12 | Q27로 돌아가기

A28 정답 ④

판단 근거: 화자가 떠나지 못하는 상황을 작업실이 화자를 붙드는 관계로 바꾸어 아쉬움과 애착을 나타냈다.

선지	정답 여부	해설
①	✕	단순 어순 변화가 아니라 붙드는 주체를 작업실로 바꾼 표현이다.
②	✕	화자는 차마 떠나지 못하며 머물고 싶은 애착을 보인다.
③	✕	물리적으로 갇혔거나 자물쇠가 고장 났다는 내용은 없다.
④	○	**“차마 떠나지 못했다” / “작업실이 나를…놓지 않는구나”**

다시 볼 설명: E10 | Q28로 돌아가기

A29 정답 ①

판단 근거: 〈보기〉의 길 안내 기능이 ‘네 발이 길을 잃지 않도록’이라는 작품 근거와 연결된다.

선지	정답 여부	유형	해설
①	○	—	**“길을 잃지 않도록” / 〈보기〉의 “밤길을 안내하는 표지”**
②	✕	[반대]	제공된 배경 정보를 작품의 표현과 연결하는 것이 이 〈보기〉의 역할이다.
③	✕	[근거 없음]	도착을 바라는 마음과 실제 도착한 결과는 다르다.
④	✕	[범위 넘침]	〈보기〉는 이 작품 속 마을의 안내 표지를 설명하며 모든 시의 이별 상징으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다시 볼 설명: E13 | Q29로 돌아가기

A30 정답 ③

판단 근거: 앞 문장은 돌탑의 배경 정보를, 뒤 문장은 공동체의 마음에 주목하라는 방향을 준다.

선지	정답 여부	유형	해설
①	✕	[범위 넘침]	이 작품 속 마을과 해당 작품의 해석에 적용하는 정보이다.
②	✕	[반대]	뒤 문장이 함께하는 행동과 공동체의 마음을 살피도록 한다.
③	○	—	**“안전을 빈다” / “공동체의 마음을 살펴보자”**
④	✕	[근거 없음]	작품 속 풍습을 설명할 뿐 실제 작가의 거주지는 제시하지 않는다.

다시 볼 설명: E13 · E14 | Q30로 돌아가기

A31 정답 ①

판단 근거: 화자의 낙심이 제시되고 풀도 나처럼 낙심한다고 했으므로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

선지	정답 여부	유형	해설
①	○	—	**“나는…낙심했다” / “풀도 나처럼 낙심하여”**
②	×	—	㉡ 없음 — 화자의 감정은 있지만 풀에 같은 감정을 부여하지는 않았다.
③	×	—	㉠ 없음 — 풀의 감정은 있으나 화자의 감정이 확인되지 않아 동일한 감정의 이입인지 단정할 수 없다.
④	×	—	두 감정이 다름 — 화자와 대상의 감정이 서로 다르므로 같은 감정을 부여한 경우가 아니다.

다시 볼 설명: E14 | Q31로 돌아가기

A32 정답 ④

판단 근거: 본문의 ‘십 년’과 〈보기〉의 화자 설정이 일치한다.

선지	정답 여부	유형	해설
①	×	[근거 없음]	오래된 정류장을 다시 찾았다는 것과 철거되어 없다는 것은 다르다.
②	×	[원인 바뀜]	떠난 원인이 제시되지 않았다.
③	×	[근거 없음]	화자의 설정을 작가의 실제 삶으로 바꿀 수 없고 해외라는 정보도 없다.
④	○	—	**“고향을 떠난 지 십 년” / “다시 찾았다”**

다시 볼 설명: E13 · E15 | Q32로 돌아가기

A33 정답 ③

판단 근거: 허전함을 느끼는 사람은 역에 남은 ‘나’이며 도시락이 형과 연결된다.

선지	정답 여부	유형	해설
①	×	[주체 바뀜]	도시락을 보고 역에 남은 사람은 형이 아니라 화자이다.
②	×	[원인 바뀜]	도시락은 형이 건넨 것이며, 허전함이 떠남의 원인이라는 근거도 없다.
③	○	—	**“역에 남은 나는” / “도시락을 보며 허전해했다”**
④	×	[근거 없음]	형의 목적이나 속마음은 제시되지 않았다.

다시 볼 설명: E17 | Q33로 돌아가기

A34 정답 ③

판단 근거: 코트에 가지 않던 상태가 '다시 라켓을 잡았다'는 행동으로 바뀐다.

선지	정답 여부	유형	해설
①	✕	[반대]	패배는 본문에 사실로 제시되어 있다.
②	✕	[범위 넘침]	'한 달 뒤'의 재시작을 무시하고 한동안의 행동을 평생으로 넓혔다.
③	○	—	**"한동안…가지 않았다" → "한 달 뒤, 다시 라켓을 잡았다"**
④	✕	[범위 넘침]	다시 시작한 행동만 있을 뿐 이후의 모든 경기 결과는 없다.

다시 볼 설명: E17 | Q34로 돌아가기

A35 정답 ①

판단 근거: 약속을 바꾸지 않겠다는 문맥에서 바위의 단단함과 흔들리지 않음이 두드러진다.

선지	정답 여부	유형	해설
①	○	—	**"약속을 바꾸지 않겠다" / "깊이 박힌 바위"**
②	✕	[범위 넘침]	대상의 이름이 기법을 결정하지 않으며 이 문장은 은유와 관념의 구체화로 볼 수 있다.
③	✕	[근거 없음]	결심을 바위에 빗댔지만 바위가 스스로 결심한다고 하지는 않았다.
④	✕	[반대]	후회보다 약속을 바꾸지 않겠다는 결심이 제시되어 있다.

다시 볼 설명: E16 | Q35로 돌아가기

A36 정답 ②

판단 근거: 편지를 보낸 행동은 있으나 상대의 반응은 제시되지 않았다.

선지	정답 여부	유형	해설
①	✕	[범위 넘침]	현재 답장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의 영원한 태도로 확대할 수 없다.
②	○	—	**"편지를 우편함에 넣었다" / "아직 답장은 오지 않았다"**
③	✕	[근거 없음]	사과하는 행동이 곧 상대의 용서를 뜻하지는 않는다.
④	✕	[반대]	편지를 우편함에 넣었다는 행동은 명시되어 있다.

다시 볼 설명: E15 · E17 | Q36로 돌아가기

A37 정답 ④

판단 근거: 싹을 보지 못하던 상태에서 걸음을 멈추고 주변 쓰레기를 줍는 행동으로 바뀌었다.

선지	정답 여부	유형	해설
①	✕	[근거 없음]	싹의 죽음이나 자연에 대한 원망은 제시되지 않았다.
②	✕	[범위 넘침]	한 장면의 관심을 모든 생명에 대한 완벽한 이해로 확대했다.
③	✕	[반대]	걸음을 멈추고 쓰레기를 줍는 새 행동이 있다.
④	○	—	**“보지 못했다” → “걸음을 멈추고…쓰레기를 주웠다”**

다시 볼 설명: E15 · E17 | Q37로 돌아가기

A38 정답 ②

판단 근거: 우산을 상대 쪽으로 기울이는 행동과 상대의 책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배려를 뒷받침한다.

선지	정답 여부	유형	해설
①	✕	[근거 없음]	계절은 제시되지 않았으며 비가 여름에만 오는 것도 아니다.
②	○	—	**“네 쪽으로 조금 더 기울였다” / “네 책은 젖지 않도록”**
③	✕	[근거 없음]	가격 정보는 작품에 없고 상대를 배려하는 행동을 설명하지 못한다.
④	✕	[근거 없음]	알고 지낸 기간은 작품·〈보기〉 의 근거 없이 덧붙인 정보이다.

다시 볼 설명: E14 · E16 | Q38로 돌아가기

A39 정답 ②

판단 근거: 다시 잇고 다음에 띄울 날을 기다리는 행동이 지속하려는 태도와 연결된다.

선지	정답 여부	유형	해설
①	✕	[반대]	‘다시 이었다’, ‘다시 띄울 날’이 포기라는 해석과 어긋난다.
②	○	—	**“연줄을 다시 이었다” / “다시 띄울 날을 기다리며”**
③	✕	[반대]	연줄을 다시 잇는 구체적 행동이 재도전의 태도를 드러낸다.
④	✕	[근거 없음]	준비와 기다림이 제시되었을 뿐 실제로 연이 날아올랐다는 결과는 없다.

다시 볼 설명: E15 · E18 | Q39로 돌아가기

A40 정답 ③

판단 근거: 관념의 구체화와 그에 대한 대응을 각각 '젖은 진흙', '그래도…나아갔다'에서 찾았다.

선지	정답 여부	유형	해설
①	✕	[반대]	구체화 설명은 맞지만 '한 걸음씩 앞으로'라는 행동을 반대로 읽었다.
②	✕	[반대]	두려움은 분명히 존재한다. 두려움에 맞서는 것과 처음부터 없는 것은 다르다.
③	○	—	**"두려움은…젖은 진흙" / "그래도…앞으로 나아갔다"**
④	✕	[범위 넘침]	〈보기〉의 구체화 요구를 놓쳤고 감정이 모두 사라졌다는 결과도 없다.

다시 볼 설명: E14 · E16 · E18 | Q40로 돌아가기

A41 정답 예시 답안

예시 답안: 망설임 / 질긴 덩굴 / 발목을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성질

인정 기준	확인할 내용
1	추상적 관념을 '망설임'으로 쓴다.
2	구체적 대상을 '질긴 덩굴' 또는 '발목에 감긴 덩굴'로 쓴다.
3	움직임을 막거나 얽어맨다는 성질을 쓴다.

단지 '생생하게 표현했다'라고만 쓰면 어떤 성질을 연결했는지 드러나지 않는다.

다시 볼 설명: E07 · E16 | Q41로 돌아가기

A42 정답 예시 답안

예시 답안: 강 → 나 / 주객전도

인정 기준	확인할 내용
1	뒤 문장의 주체가 강이고 대상이 나임을 맞게 쓴다.
2	표현 방식을 '주객전도'로 쓴다.

실제 상황은 나→강, 바꾸어 표현한 말은 강→나이다. 어순만 달라진 도치와 구별한다.

다시 볼 설명: E10 · E11 | Q42로 돌아가기

A43 정답 예시 답안

예시 답안: ‘다시 돌을 모았다’ / ‘친구도 손을 보탰다’

인정 기준	확인할 내용
1	다시 돌을 모으는 행동 또는 그에 해당하는 구절을 쓴다.
2	친구가 손을 보태는 행동 또는 그에 해당하는 구절을 쓴다.

‘허물어진 돌담’만 쓰면 어려운 상황은 찾았지만 다시 시작하거나 협력하는 행동까지 찾은 것은 아니다. 같은 뜻의 풀어 쓰기도 인정한다.

다시 볼 설명: E13 · E16 · E18 | Q43로 돌아가기

A44 정답 예시 답안

예시 답안: 내일 다시 오기로 한 행동은 아직 싹이 없어도 돌봄을 이어 가려는 태도를 보여 준다.

인정 기준	확인할 내용
1	싹이 모두 자랐거나 돌봄이 끝났다는 단정을 없앤다.
2	다시 오기로 한 행동을 돌봄의 지속과 연결한다.

‘아직 싹이 보이지 않아도’와 ‘내일 다시’가 판단 근거이다. 문구가 달라도 두 조건을 충족하면 인정한다.

다시 볼 설명: E15 · E17 · E18 | Q44로 돌아가기

A45 정답 ①

판단 근거: 키를 재던 문틀의 연필 금 앞에서 웃음소리를 그리워하므로 흔적·기억·정서가 연결된다.

선지	정답 여부	유형	해설
①	○	—	**“우리 키를 재던 문틀” / “연필로 그은 금” / “웃음소리들이 그리웠다”**
②	×	[근거 없음]	감정을 부여받은 것으로 직접 표현된 것은 문틀이다. 연필 금 자체가 슬퍼한다고 하지는 않았다.
③	×	[반대]	‘우리 키를 재던’, ‘아직 남아 있었다’가 과거와 현재의 연결을 보여 준다.
④	×	[근거 없음]	폐교 원인은 제시되지 않으며 주된 정서는 그리움과 아쉬움이다.

다시 볼 설명: E01 · E02 · E13 | Q45로 돌아가기

A46 정답 ②

판단 근거: ‘나는 서운했다’, ‘문틀도 서운한지’가 정서를 연결하며 한숨 쉬는 인간적 모습도 부여했다.

선지	정답 여부	유형	해설
①	✕	[반대]	두 개념은 서로 배제되지 않는다. 문틀은 감정을 부여받아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
②	○	—	**“나는 서운했다” / “문틀도 서운한지…한숨을 쉬었다”**
③	✕	[근거 없음]	작품 속 화자의 감정은 읽을 수 있지만 실제 작가의 감정까지 확정할 수는 없다.
④	✕	[반대]	문틀도 서운하다고 했으므로 정서가 일치한다.

다시 볼 설명: E03 · E04 · E05 | Q46로 돌아가기

A47 정답 ①

판단 근거: ‘나→문틀’이 ‘문틀→나’로 바뀌는 주객전도이며 떠나기 어려운 애착이 두드러진다.

선지	정답 여부	유형	해설
①	○	—	**“나는 그 문틀을 놓지 못했다” → “문틀이 나를 놓지 못했다”**
②	✕	[반대]	문틀은 화자를 ‘놓지 못했다’고 했으므로 내보내는 행동과 반대이다.
③	✕	[반대]	두 문장에서 주체와 대상이 실제로 바뀐다.
④	✕	[근거 없음]	주객전도는 애착을 표현하며 문틀의 물리적 능력이나 폐교 원인을 밝히지 않는다.

다시 볼 설명: E10 · E11 · E16 | Q47로 돌아가기

A48 정답 ①

확인 항목	찾은 내용
〈보기〉의 정보·조건	어린 시절 공간의 흔적이 기억·애착을 드러내는지 살핌
작품 근거	'연필로 그은 금', '웃음소리들이 그리웠다', '문틀을 놓지 못했다'
연결한 해석	과거의 흔적이 현재의 그리움과 공간에 대한 애착으로 이어짐
단정하지 않을 것	현재 모든 친구와 함께 지낸다는 사실, 폐교의 원인·철거 날짜

부적절한 내용은 ①입니다. 나머지 세 선지의 내용은 적절합니다.

판단 근거: 기억과 그리움은 현재 모든 친구와 함께 지낸다는 사실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선지	정답 여부	유형	해설
①	○	[근거 없음]	**"웃음소리들이 그리웠다" — 현재 모든 친구와 함께 지낸다는 근거는 없음**
②	✕	—	키를 재던 문틀과 남은 금이 웃음소리에 대한 기억으로 이어진다.
③	✕	—	사람이 아닌 문틀에 한숨 쉬는 행동을 부여했다.
④	✕	—	화자가 문틀을 놓지 못하는 상황을 주체를 바꾸어 표현했다.

다시 볼 설명: E15 · E17 · E18 | Q48로 돌아가기

A49 정답 ①

판단 근거: 분필을 주운 뒤 선생님의 경청을 기억하고 친구의 풀이를 끝까지 듣는다.

선지	정답 여부	유형	해설
①	○	—	**"짧은 분필을 주웠다" → "끝까지 들어 주시던 선생님"**
②	✕	[근거 없음]	다른 학교로 가셨다는 상황을 뒤집는 내용은 없다.
③	✕	[근거 없음]	분필의 감정이나 분노는 제시되지 않는다.
④	✕	[반대]	선생님은 서툰 풀이도 끝까지 들어 주었으며 빨리 지우라는 지시는 없다.

다시 볼 설명: E01 · E16 · E18 | Q49로 돌아가기

A50 정답 ③

판단 근거: 기다리는 마음을 쉽게 닫히지 않고 문턱이 낮은 문에 빗대어, 상대가 부담 없이 다가오도록 받아들이는 태도를 드러냈다.

선지	정답 여부	유형	해설
①	✕	[주체 바뀜]	기다려 주는 마음을 문에 빗댔을 뿐 문이 화자를 기다린다고 하지는 않았다.
②	✕	[근거 없음]	마음을 문에 빗댄 표현이며 실제 건물의 측정 결과가 아니다.
③	○	—	**“기다려 주는 마음” / “문턱이 낮고” / “쉽게 닫히지 않는 문”**
④	✕	[반대]	친구의 풀이를 끝까지 듣는 행동은 수용과 기다림을 뒷받침한다.

다시 볼 설명: E07 · E08 · E16 | Q50로 돌아가기

A51 정답 ④

확인 항목	찾은 내용
〈보기〉의 정보·조건	물건이 불러온 기억이 현재 행동으로 이어지는지 살핌
작품 근거	‘분필을 주웠다’, ‘끝까지 들어 주시던’, ‘친구의 풀이를 끝까지 들었다’
연결한 해석	선생님의 기다림을 기억하고 친구를 대하는 태도로 이어 감
단정하지 않을 것	친구의 풀이가 모두 맞다는 판단, 화자의 이후 모든 행동

부적절한 내용은 ④입니다. 나머지 세 선지의 내용은 적절합니다.

판단 근거: 끝까지 듣는 태도와 풀이가 맞다고 인정하는 것은 별개이며, 정답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제시되지 않았다.

선지	정답 여부	유형	해설
①	✕	—	분필을 주운 뒤 끝까지 들어 주던 선생님을 떠올린다.
②	✕	—	친구의 풀이를 듣는 문맥에서 열린 문의 성질이 수용과 연결된다.
③	✕	—	선생님의 경청이 화자의 현재 행동으로 이어진다.
④	○	**[근거 없음]**	**“풀이를 끝까지 들었다” — 풀이가 맞다고 판단한 내용은 없음**

다시 볼 설명: E15 · E17 · E18 | Q51로 돌아가기

A52 정답 ②

판단 근거: 분필은 선생님의 기억과, 문은 추상적 마음의 감각화와 각각 연결된다.

선지	정답 여부	유형	해설
①	✕	[근거 없음]	분필이나 문이 감정을 느낀다는 표현은 없다.
②	○	—	**“분필을 주웠다” / “기다려 주는 마음은…문”**
③	✕	[반대]	구체적인 대상에 빗대어 추상적인 것을 감각화할 수 있다.
④	✕	[반대]	서로 다른 표현이 각기 다른 기능을 하며 두 개념이 배제되지 않는다.

다시 볼 설명: E05 · E06 · E08 | Q52로 돌아가기

A53 정답 ②

판단 근거: 〈보기〉에서 귀환을 기원하는 풍습을 제시했고 작품의 ‘돌아올 날을 기다리며’가 이를 뒷받침한다.

선지	정답 여부	유형	해설
①	✕	[근거 없음]	귀환을 바라는 행동과 실제 항해의 결과를 구별해야 한다.
②	○	—	**〈보기〉의 “무사한 귀환을 기원” / “돌아올 날을 기다리며”**
③	✕	[근거 없음]	감은 횟수가 이별의 횟수를 뜻한다는 정보는 없다.
④	✕	[범위 넘침]	〈보기〉는 작품 속 마을의 정보이며 현실의 모든 항구로 일반화할 수 없다.

다시 볼 설명: E13 · E14 | Q53로 돌아가기

A54 정답 ①

판단 근거: 바람을 청자로 삼아 부탁하는 ‘말을 건네는 방식’이다(04편).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상대처럼 대하지만, 같은 정서의 이입은 확인되지 않는다.

선지	정답 여부	유형	해설
①	○	—	**“바람아” / “풀지 말아다오”**
②	✕	[반대]	매듭이 풀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부탁의 내용으로 드러난다.
③	✕	[근거 없음]	화자의 부탁만 있고 바람의 응답은 없다.
④	✕	[근거 없음]	말을 거는 형식과 같은 감정의 부여는 다른 조건이다.

다시 볼 설명: E03 · E04 · E12 | Q54로 돌아가기

A55 정답 ②

판단 근거: 추상적 그리움을 물결로 나타냈고 '오래 따라갔다'가 마음의 지속을 뒷받침한다.

선지	정답 여부	유형	해설
①	✕	[반대]	그리움은 추상적이고 물결은 구체적이다. 방향을 반대로 설명했다.
②	**○**	**—**	**"그리움은 긴 물결이 되어" / "오래 따라갔다"**
③	✕	[반대]	물결이 오래 따라가는 동적인 모습이므로 정서가 멎었다는 해석은 어긋난다.
④	✕	[반대]	그리움은 계속 이어지며 사라지거나 잊혔다고 하지는 않았다.

다시 볼 설명: E07 · E08 · E16 | Q55로 돌아가기

A56 정답 ④

확인 항목	찾은 내용
〈보기〉의 정보·조건	푸른 실은 귀환 기원의 표지. 행동에 담긴 바람과 감정의 구체화를 살핌
작품 근거	'푸른 실', '돌아올 날을 기다리며', '그리움은 긴 물결', '오래'
연결한 해석	누나의 귀환을 바라며 그리움을 오래 이어 감
단정하지 않을 것	실을 묶는 모든 마을의 관습, 항해의 성공 결과, 누나의 속마음

부적절한 내용은 ④입니다. 나머지 세 선지의 내용은 적절합니다.

판단 근거: 배가 사라져도 돌아올 날을 기다리며 손을 흔든다고 하므로 포기했다는 설명은 반대이다.

선지	정답 여부	유형	해설
①	✕	—	〈보기〉가 알려 준 풍습과 돌아올 날을 기다리는 행동이 연결된다.
②	✕	—	'바람아'라고 부르고 매듭을 풀지 말라고 부탁한다.
③	✕	—	그리움을 구체적인 물결로 나타내고 '오래 따라갔다'고 했다.
④	**○**	**[반대]**	**"배가…사라져도" / "돌아올 날을 기다리며"**

다시 볼 설명: E15 · E17 · E18 | Q56로 돌아가기

A57 정답 ③

판단 근거: 어제 폭우의 피해를 제시하고 오늘 다시 심는 행동으로 이어진다. 03편의 시간에 따른 전개와 연결된다.

선지	정답 여부	유형	해설
①	✕	[근거 없음]	오늘의 성공 결과나 어린 시절 회상은 없다.
②	✕	[반대]	피해와 수습, 다시 심기, 기다림이라는 행동과 시간의 변화가 있다.
③	○	—	**“어제의 폭우” → “오늘 아침”**
④	✕	[근거 없음]	공간 이동의 여정이 아니라 어제와 오늘의 시간 변화가 중심이다.

다시 볼 설명: 앞선 편 개념 다시 보기 | Q57로 돌아가기

A58 정답 ④

판단 근거: 주체·대상·행동의 유사한 구조가 인접한 행에서 짝을 이루므로 대구로도 볼 수 있다. 04편과 연결된다.

선지	정답 여부	유형	해설
①	✕	[주체 바뀜]	장소를 나타내는 말을 뒤에 놓은 도치이다. 주체와 대상이 뒤바뀐 것은 아니다.
②	✕	[근거 없음]	인간적 모습을 부여했지만 화자의 절망을 새잎이 느낀다고 하지는 않았다.
③	✕	[근거 없음]	서로의 행동이 서술될 뿐 실제 대화는 없다.
④	○	—	**“나는…모으고 / 너는…주웠다”**

다시 볼 설명: 앞선 편 개념 다시 보기 | Q58로 돌아가기

A59 정답 ③

판단 근거: 추상적 희망을 불빛에 빗대었고 ‘다시’와 씨앗을 심는 행동이 재시작의 태도와 연결된다.

선지	정답 여부	유형	해설
①	✕	[반대]	‘다시 켜는’이라고 했으므로 반대로 읽었다.
②	✕	[주체 바뀜]	희망을 불빛에 빗댄 것이며 주체·대상 교환은 없다.
③	○	—	**“희망은…다시 켜는 불빛”**
④	✕	[반대]	서로 다른 대상을 직접 연결하는 것이 이 은유 표현의 방식이다.

다시 볼 설명: 앞선 편 개념 다시 보기 · E07 · E08 · E16 | Q59로 돌아가기

A60 정답 ①

확인 항목	찾은 내용
〈보기〉의 정보·조건	어려움 뒤 재시도와 희망을 읽고 기대·완료된 결과를 구별함
작품 근거	'아직 젖은 흙', '우리는 씨앗을 심는다', '새잎이 고개를 들 때까지'
연결한 해석	피해가 남아 있어도 협력하여 다시 심고 기다림
단정하지 않을 것	새잎의 성장이 이미 완료됨, 앞으로 피해가 전혀 없을 것이라는 보장

부적절한 내용은 ①입니다. 나머지 세 선지의 내용은 적절합니다.

판단 근거: 새잎이 고개를 들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으므로, 앞으로의 기대를 이미 끝난 결과로 바꾸었다.

선지	정답 여부	유형	해설
①	○	[반대]	**"기다리리, 새잎이 고개를 들 때까지"**
②	✕	—	어제 폭우 피해 뒤 오늘 씨앗을 심는 행동이 이어진다.
③	✕	—	각자 수습하고 함께 씨앗을 심는 행동이 협력과 연결된다.
④	✕	—	'다시 켜는 불빛'과 씨앗을 심고 기다리는 행동이 연결된다.

다시 볼 설명: E15 · E17 · E18 | Q60로 돌아가기